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어학석사 학위논문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 분석

동사성을 통해 드러난 아랍의 봄 전후 이데올로기 변화를 중심으로

Analyse du discours du Roi Mohammed VI du Maroc

Le changement idéologique avant et après le Printemps arabe par la transitivité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김 인 희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 분석

동사성을 통해 드러난
아랍의 봄 전후 이데올로기 변화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최 윤 선

이 논문을 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김 인 희

김인희의 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 장 재 성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성 헌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최 윤 선 _____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아랍의 봄 전후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대상 담화는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의 담화 15편과 아랍의 봄 이후 담화 10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권력-이데올로기'간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발화자가 어떤 형태로 담화를 생성하는지에 관한 Halliday의 '동사성 분석'을 알아본다. 동사성 분석을 위해 첫 번째로 선정한 어휘는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이고, 두 번째 어휘는 통계적으로 산출한 '핵심어'이다.

그리고 아랍의 봄 전후로 국왕의 담화 속에서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nous의 지시대상과 핵심어가 나타나는 절에서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의 담화에서는 '프랑스와 특권적 관계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반면, 아랍의 봄 이후 국왕의 담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비판적 담화 분석, 동사성, 인칭대명사, AntConc, 이데올로기, 아랍의 봄

학　번 : 2017-20579

목 차

서 론 1

제 1 장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 4

1.1. 언어와 이데올로기 4

1.2. Fairclough의 비판적 담화 분석 6

1.3. 비판적 담화 연구에 제기되는 새로운 방법 9

제 2 장 모로코 국왕 담화 분석을 위한 도구 13

2.1.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성 분석 13

2.1.1. 체계기능언어학 13

2.1.2. 동사성 16

2.1.2.1. 동사성 과정 유형 17

2.1.2.1.1. 물질적 과정 18

2.1.2.1.2. 정신적 과정 19

2.1.2.1.3. 관계적 과정 21

2.1.2.1.4. 언어적 과정 22

2.1.2.1.5. 존재적 과정 23

2.1.2.1.6. 행태적 과정 24

2.1.2.2. 배경요소 24

2.2.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25

2.2.1.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구분 25

2.2.2.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언술 전략 27

2.3. 통계적 방법 30

제 3 장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담화 분석 35

3.1. 인칭대명사 nous 분석 40

3.1.1.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분류 40

3.1.2.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 분석 42

3.1.2.1. Nous – gouvernement의 동사성 분석 42

3.1.2.2. Nous – peuple의 동사성 분석 49

3.1.2.3. Nous – relations diplomatiques의 동사성 분석 . 53

3.2. 핵심어 분석 56

3.2.1. 핵심어 선정 56

3.2.2.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64

3.2.2.1.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64

3.2.2.2.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68

3.3. 동사성 분석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 분석 71

결 론 74

참고문헌 76

Résumé 80

표 목 차

[표 1] 텍스트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 목록 8
[표 2] 아랍의 봄 이전 모로코 국왕의 담화 목록 (2010년) 37
[표 3] 아랍의 봄 이후 모로코 국왕의 담화 목록 (2011년) 38
[표 4] Nous의 지시대상의 빈도 변화 (%) 41
[표 5] Nous – gouvernement의 동사성 과정 유형 분류 43
[표 6] Nous – gouvernement의 정신적 하위 과정 유형 분류 44
[표 7] 아랍의 봄 이후 Nous – peuple의 정신적 하위 과정 분류 ... 50
[표 8] 아랍의 봄 이전 상위 10개 핵심어 (2010년) 58
[표 9] 아랍의 봄 이후 상위 10개 핵심어 (2011년) 58
[표10] 아랍의 봄 전후로 나타난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 변화 72

그 림 목 차

[그림 1] Faucault의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관계 5
[그림 2] Fairclough의 담화 분석의 세 단계 7
[그림 3] 체계기능 모델의 삼각 표현 15
[그림 4] Halliday의 동사성 과정 유형 17
[그림 5] 담화 분석 과정 36
[그림 6] 'Nous'의 동사성 과정 유형 분석 자료 (엑셀) 39
[그림 7] 핵심어 산출 과정 (AntConc) 39

서 론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전후로 나타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 분석을 통해 담화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배경인 모로코는 입헌군주제로, 현재 모로코 국왕은 모하메드 6세 Mohammed Ⅵ이다. 모하메드 6세는 1999년부터 아버지 하산 2세 Hassan Ⅱ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실질적으로 모로코를 통치하고 있다. 모로코는 1912년에 프랑스 보호령으로 분할되어 44년간 프랑스의 영향을 받다가 1956년에 독립하였다.[1] 프랑스와 모로코는 과거 식민지 관계였다고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인 ‘아랍의 봄’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이다.[3] 2011년 당시에 튀니지의 인근 국가인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리비아에서는 42년간 장기 집권한 무아마르 카다피가 시민군에 체포되어 사망하였고,[4]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간 오랜 독재 끝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5]

---

[1] 외교부, 2018, 『2018 모로코 개황』, 외교간행물, p.20.

[2] Ibid., p.77.

[3] 본고에서는 2011년 당시 아랍 여러 국가들에 발생했던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아랍의 봄’이라는 어휘로 지칭하기로 한다. 해당 명칭은 아랍의 사태affaire, 혁명révolution, 봉기manifestation, 저항résistance등으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4] Allansson, M, et al. 2012. *Sipri yearbook 2011,*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p.48.

[5] 사희만, 2017, 『아랍의 언어와 정치』, 한국학술정보, pp.125-126.

모로코에서는 국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2월 20일에 'Mouvement du 20 Février'라는 이름으로 결집하였고, 이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인권 강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다.[6] 이에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헌법 개정을 선포하는 등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응하는 대국민 담화를 총 10회 발표했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아랍의 봄 연구에서는 모로코 국왕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군주제 형태 및 비산유국인 점과 같은 정치적 현상에 치중하여 설명되어 왔다. 예컨대 Duke(2016)는 모로코가 군주제 형태이기 때문에 국왕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혼란을 중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7] 그리고 Yom(2012)은 모로코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방세력의 직접적인 간섭을 덜 받은 이유로 모로코 국왕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8]

이러한 정치 이론은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틀을 제시하지만 모로코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즉, 기존의 정치 이론은 모로코 국왕과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비판적 담화 연구에서는 '언어'를 통해 국왕과 국민과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왕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수 있다. Wodak & Meyer(2016)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화자의 담화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담화 속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의심받지 않는

---

[6] Brouwer, L. & Bartels, E. 2014. Arab Spring in Morocco: social media and the 20 February movement. *Afrika Focus* (27). p.9.

[7] Duke, M. 2016. Manufacturing consent in Maghreb: How Mohammed VI in Morocco survived the Arab Spring. *Dissertation and Theses* 3413. p.80.

[8] Yom, S, L. & Gausse, G. 2012. Resilient Royals: How Arab Monarchies Hang On. *Journal of Democracy* 23(4). pp.74-88.

다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9] 또한 Van Dijk(1993)는 이데올로기를 사회적 인지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관으로 정의한다.[10] 다시 말해 인지를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을 통해 아랍의 봄 전후로 모로코 국왕 담화 속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랍의 봄 직전 해인 2010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대국민 담화 15편과 아랍의 봄 이후인 2011년 대국민 담화 10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때 각 시기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내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의 담화는 오랜 군주제의 통치 하에 있던 모로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아랍의 봄 이후 담화는 민주화 요구에 응하는 국왕의 담화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언어적 요소에 주목하는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에 대해 살필 것이다. 2장에서는 본 담화 분석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연구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인칭대명사 '우리nous'의 지시대상과 각 시기별 핵심어의 동사성을 분석하여 모로코 국왕 담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분석한다.

---

[9] Wodak, R. & Meyer, M. 2016.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3rd edition)*. London: Sage. (김현강 외 공역, 2021, 『비판적 담화 연구의 방법들』, 경진출판, pp.32-33.)

[10] Ibid., p.33.

제 1 장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

1.1. 언어와 이데올로기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은 언어 안에 숨겨져 있거나 불투명하게 존재하는 지배, 권력, 통제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11] 이 방법론은 프랑스 철학자 Michel Foucault가 조명한 '언어-권력-이데올로기'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언어적 요소'가 이데올로기에 기여하는 효과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ucault는『담론의 질서(1971)』에서 '언어-권력-이데올로기'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나열식으로 설명하였다.

- 권력이 언어를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통해서 권력을 성취한다.
- 사회적 관례들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권력 관계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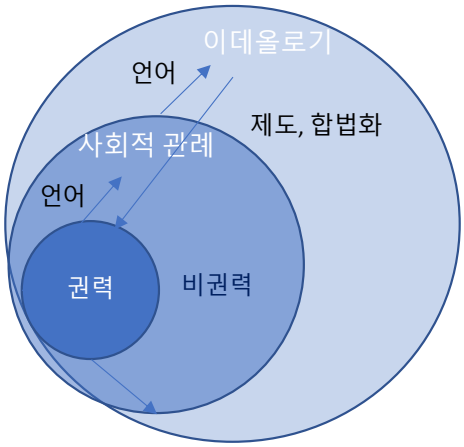
Foucault가 포착한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관계란, 권력과 비권력 사이에는 사회적 관례가 존재하며, 이 사회적 관례에서는 언어를 통해 이데올로기가 창출되고 은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사는 권력, 환자는 비권력적 관계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신체정보를 요구하면서 의사는 환자보다 권위적 존재가 되고,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례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

[11] 김현강 외 공역. op.cit., p.39.

고, 이데올로기는 권력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제도와 합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진리나 지식으로 여겨지는 관계에 대한 Foucault의 새로운 시각은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의 초석이 된다.[12]

'언어-권력-이데올로기' 관계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Faucault의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관계



본 장은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인 개관을 살피는 장으로 1.2.장에서 언어적 요소를 통해 '언어-권력-이데올로기'간 관계에 접근하는 방법론인 Fairclough의 비판적 담화 분석에 대해 알아본다. 1.3.장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에 제기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2]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참여자들이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일상적인 신념에 내재되어, 숨겨지고 잠재되는 가치를 말한다. Wodak, R. & Meyer, M.(2016:32)에 따르면 정치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의 의미인 '파시즘', '사회주의'와 같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대립을 나타낸 것과 의미적 차이를 나타낸다.

1.2. Fairclough의 비판적 담화 분석

Fairclough에 의해 대표되는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후 CDA)은 “사회의 익숙한 곳에 숨어 있는 담화의 권력 관계, 지배-피지배 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의 힘의 관계를 들춰내는 접근법”이다.[13] Fairclough는 권력이 생산하는 담화를 이데올로기적 표현과 사회적 행동의 정당화를 위한 장으로 바라본다. 즉, CDA는 권력이 생산하는 언어를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권력의 담화 속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CDA 관점에서 담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인 ‘사회적 수행 Social Practices’으로 간주된다. 담화는 특정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담화와 맥락은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CDA에서의 ‘비판적’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당연시되는 사회적인 이념을 벗겨내어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각을 뜻한다.[14]

Fairclough의 CDA는 담화 분석의 과정을 아래 <그림 2>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제시한다. Fairclough는 각 단계를 거쳐, 권력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한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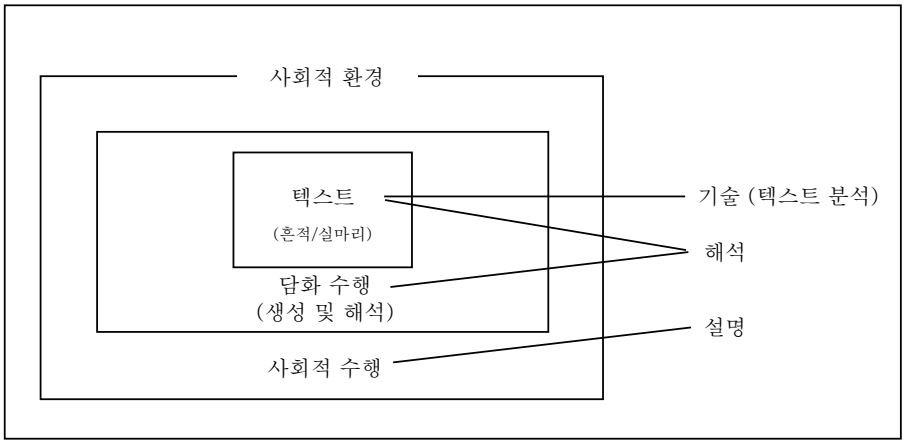
---

[13] 최윤선, 2014, 『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pp.4-5.

[14] 이원표, 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문화사, pp.37-42.

[15]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이원표 역, 2001,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pp.82-90.)

<그림 2> Fairclough의 담화 분석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담화 안에서 선택한 '텍스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언어적 잠재력을 포착하는 과정으로, 어떤 텍스트가 권력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때 텍스트는 어휘와 문법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말이나 글 자체로, '담화 수행'의 흔적이나 실마리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는 '의미적 잠재력meaning potential'을 갖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분석한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Fairclough는 어휘, 문법, 구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볼만한 주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아래의 주요 문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안내문의 역할을 할 뿐이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배경지식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16]

---

[16]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London: Pearson education. (김지홍 역, 2011, 『언어와 권력』, 경진출판, pp.214-217.)

<표 1>은 Fairclough의 『언어와 권력』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표 1> 텍스트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 목록

a. 어휘에 대한 것: 단어들이 어떤 경험적, 관계적,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 분류 체계, 반복 어휘 표현 여부, 의미 관계 등. b. 문법에 대한 것: 문법적 특징들이 어떤 경험적, 관계적,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 어떤 유형의 과정 및 참여자가 우위를 점하는지? 과정들은 어떤 것인듯 한지? 대명사 we 가 사용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c. 텍스트 구조에 대한 것: 상호작용의 관례와 텍스트의 거시적 구조는 어떠한가 - 발언기회를 얻어내고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위 <표 1>에서 제시된 주요 문제는 분석할 담화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정이 가능하기에 모든 문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발언기회를 얻어내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토론 상황에만 해당하며 연설문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Fairclough의 텍스트 분석에 대한 시각은 핼러데이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 Linguistique Systémetique Fonctionnelle'에 토대를 두고 있다.[17] 체계기능언어학은 발화자가 어떻게 담화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CD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언어 철학을 갖는다. 특히, 텍스트가 세계를 표현하고(경험적 기능),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규정하고(관계적 기능), 어휘와 문법 등 체계 안에서 텍스트가 선택되어 만들어진다는(표현적 기능) 점에서 두 이론은 텍스트에 대한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는 체계기능언어학은 2.1.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7] Ibid., p.45.

두 번째 단계인 '담화 수행'은 텍스트가 생성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의 언어적 구성과 특징들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누가 어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담화가 어떤 표면 구조와 유형을 지녔는지를 해석하며,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도 읽어낸다.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수행'은 담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회적 수행은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구조나 제도가 어떻게 텍스트나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로 텍스트나 담화가 누적되면서 구조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읽어내는 과정이다.

1.3. 비판적 담화 분석에 제기되는 새로운 방법

CDA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유연하다. 다시 말해, CDA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이라기보다 '담화 속에 담긴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CDA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CDA는 연구자가 선택한 사례를 통해 담화 속 이데올로기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의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분석을 인상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18] 최근에는 컴퓨터 기반의 통계적 방법을 통해 균형잡힌 CDA를 지향하는 연구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유리하게 선택한 사례만으로는 결론의

[18]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권 3호, 2018, pp.1-42.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의 움직임이다.[19]

Baker et al.(2006)은 코퍼스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CDA를 병행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20]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면, 연구자가 통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어휘를 분석하여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CDA만 수행했을 때 대비 균형잡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Wodak & Meyer(2016) 역시 통계적 방법은 텍스트의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당연시되는 가정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CDA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21]

Baker et al.(2012)는 1998년과 2009년 사이의 영국 언론들에서 사용한 '무슬림Muslim' 관련 어휘를 통계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CDA를 실시하였다.[22] 그 결과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당시 영국 언론들은 무슬림을 'Muslim world'로 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aker는 2005년 '런던 7.7 지하철 폭탄 테러' 이후 영국 언론들이 무슬림을 지칭하는 어휘가 'Muslim community'로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였다. 따라서 Baker는 'Muslim community'라는 어휘가 의도적으로 '영국 내 무슬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Baker는 영국 언론 매체들이 'Muslim community'라는 어휘를 통해 이들이 영국 안에 위치하는 점을 환기시키고, 이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하는 것을 들추어낸다.

Mu et al.(2021)은 2020년 The New York Times의 35개 뉴스 보도

---

[19] Toolan, M. 1997. What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why are people saying. such terrible things about it. *Language and Literat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Stylistics* 6(2), pp.83-103.

[20] Baker, P. 2006. *Using Corpora in Discourse Analysis*. London: Continuum. pp.10-12.

[21] 김현강 외 공역. op.cit., pp.298-299.

[22] Baker, P. & Gabrielatos, C & McEnery, T. 2012. Sketching Muslims: A Corpus Driven Analysis of Representations Around the Word 'Muslim' in the British Press 1998–2009. *Applied linguistics* 34(3), Oxford University Press, pp.255-276.

에 대해 CDA를 수행했다.[23] 이 35개 뉴스들은 '중국 팬데믹 관련' 보도에 관한 것인데, Mu는 해당 뉴스 속 핵심어를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여 해당 일간지가 내포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중국 팬데믹 관련 보도에서는 'China', 'COVID-19', 'virus and disease바이러스와 병', 'prevention and control예방과 통제'와 같은 어휘들이 핵심어로 산출되었다. 아래 예문처럼 China가 나타난 문장에서는 COVID-19가 함께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The New York Times가 중국을 코로나와 연관짓고 있음을 드러낸다.

> **China** gives unproven **COVID-19** vaccines to thousands, with risks unknown.
> 중국은 위험을 알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COVID-19 백신을 수천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 (The New York Times, September/27/2020)

> **China** aims to end extreme poverty, but **COVID-19** exposes gaps.
> 중국은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COVID-19는 격차를 드러낸다.
> (The New York Times, October/26/2020)

Mu는 핵심어가 나타난 문장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The New York Times가 중국이 시행하는 예방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해당 연구는 통계적 방법과 CDA를 결합하여 The New York Times 속 '중국에 대한 불신을 품는 이데올로기'를 들추

[23] Mu, J, F. & Zhao, H, Y. & Yang, G. 2021.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Reports about China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New York Times. *Open Access Library Journal* 8 (8), pp.1-16.

어낸다.

이처럼 통계적 방법을 결합한 CDA는 언론 보도에 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 담화를 분석한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Fairclough(2000)는 영국 정치인 Tony Blair의 집권 이후 노동당 담화 속 핵심어를 분석하여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타낸다. Tony Blair가 집권한 이후 노동당은 비즈니스 이익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나타나는데 'partnership동반 관계', 'new새로운', 'deliver전달', 'deal거래', 'business비즈니스'와 같은 핵심어와 함께 그 변화의 근거를 구체화한다. 또한 Khan et al.(2019)은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Donald Trump의 담화를 분석하여 Trump가 정당화하는 '반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24] 해당 연구에서는 Trump가 무슬림을 미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 형성화하고, 이를 위해 'hatred 증오' 'terrorism테러리즘', 'radicalization급진주의', 'extremism 극단주의'와 같은 핵심어로 표현한 점을 밝힌다. 예컨대, "많은 무슬림들이 미국인에 대한 큰 'hatred증오'가 있다"는 등의 담화 사례들을 통해, Khan은 Trump가 담화 속에서 무슬림을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점을 들추어낸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 방법'을 통해 담화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 어휘를 추출하기로 한다. 이 방법에 대한 이론적 개요는 2.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24] Khan, M, H. et al. 2019. Muslims' Representation in Donald Trump's Anti-Muslim-Islam Statemen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ligions* (10)115. pp.1-16.

제 2 장 모로코 국왕 담화 분석을 위한 도구

이번 장에서는 국왕 담화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담화 분석의 도구를 살펴본다. 2.1.장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성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개요를 제시한다. 2.2.장에서는 인칭대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살펴본 후, 2.3.장에서는 통계적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1.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성 분석

본 논문에서 중심이 되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기능언어학 Linguistique Systémetique Fonctionnelle의 '동사성 transitivité' 분석을 채택한다. 동사성 분석은 국왕이 담화 속에서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지 살필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국왕이 내포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2.1.1. 체계기능언어학

이번 장은 동사성 분석의 토대가 되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개요를 파악하는 장으로, 체계기능언어학과 CDA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고 체계기능언어학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Halliday(2014)의 체계기능언어학과 Fairclough의 CDA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맥락과 사회를 고려하여' 언어를 형성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또한 체계기능언어학과 CDA는 '텍스트'가 언어학적 분석의 기본 단위이며, 맥락과 사회에 의해 정의되는 언어의 의미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25] Hart, C. 2014. *Discourse, Grammar and Ideology*. London: Bloomsbury Academic. (김동환 & 이미영 역, 2017,『담화, 문법, 이데올로기』, 로고스라임, p.54.)

을 가진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체계적systémetique'과 '기능적fontionnelle'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체계적'이란 용어는 언어를 하나의 체계망, 즉 의미를 이루는 연관 선택 항목들로 보는 견해를 반영한다. '기능적'이란 언어가 일정한 맥락 속에서 하는 역할을 가리키며, 언어의 의미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Halliday는 언어 활동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차원을 관념적 메타기능métafonction idéationnelle, 대인적 메타기능métafonction interpersonalle, 텍스트적 메타기능métafonction textuelle으로 구별한다.[27]

관념적 메타기능은 삶의 내적이거나 외적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체계이다. 관념적 메타기능에서는 발화자가 동사성 transitivité[28]을 선택하여 자신이 경험한 일련의 사태를 나타낸다고 바라본다. 여기에서 동사성은 과정procès, 참여자participant, 배경circonstance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동사성** 분석은 과정, 참여자, 배경 요소가 절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동사성의 중심을 이루는 '과정'이 절 안에서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다.

대인적 메타기능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체계이다. 예컨대, 화자가 청자에게 진술, 의문, 명령 등 어떤 서법으로 발화하는지를 구분하거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

---

[26] 이관규 외 9인, 2021,『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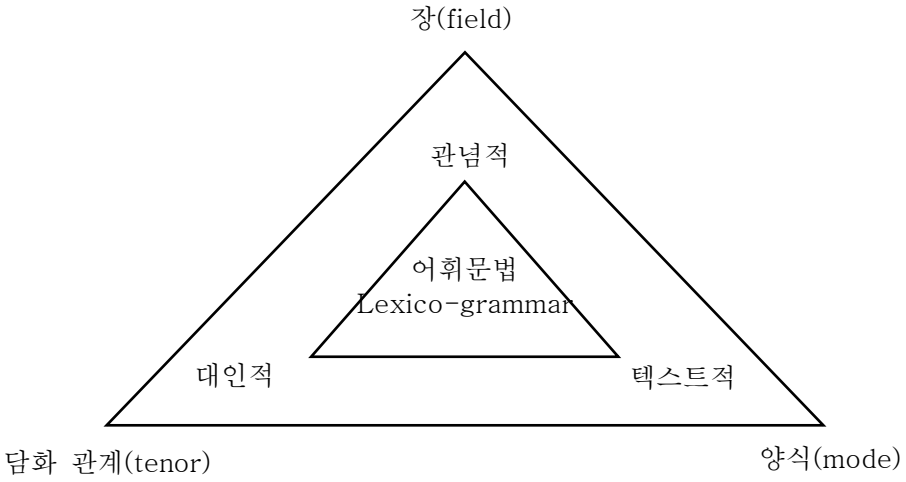
[27] 최윤선, 2021,「체계기능언어학과 비판적 담화 분석: 할리데이의 동사성 이론을 중심으로」,『불어불문학연구』, 제 127권, p.276.
이관규(2021)는 메타기능을 '대기능'으로 번역하였다.

[28] 본 연구에서의 채택한 '동사성'은 문법 의미론에서 다루는 '타동사'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타동사는 동사가 요구하는 보충어의 수와 개념인 반면,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성은 절에서 지칭하는 과정의 유형과 참여자들의 유형을 포함하는 효과를 지칭한다.(Hart, 김동환 외 역. op.cit., p.52.) 동사성은 다른 연구에서 '타동성'이나 '동성'으로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였다.

텍스트적 메타기능은 메세지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체계를 말한다. 즉, 메세지의 구조 체계를 '주제 구조'와 '정보 구조'로 나누어 다룬다. 발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맥락에 맞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Halliday는 세 가지 메타기능은 맥락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맥락은 '장field', '담화관계tenor', '양식mode'으로 구성되어 메타기능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아래 그림은 Banks(2019)가 세 가지 메타기능과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29]

[그림 3] 체계기능 모델의 삼각 표현



위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메타기능은 맥락의 세 가지 요소와 연결된다. 먼저 맥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장, 담화 관계, 양식으로 바깥쪽 삼각형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맥락은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를 뜻한다. 작은 삼각형은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적 메타기능으로, 큰 삼각형인 맥락의 세 가지 요소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장은 관념적 의미를 실현할 때 화제를 드러내고, 담화 관계는

[29] Banks, D. 2019.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English: A simple Introduction.* New York:Routledge. p.5.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적 역할 관련성을 나타내고, 양식은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어휘 문법'[30]은 맥락에 기반한 세 가지 메타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2.1.2. 동사성

비판적 담화 분석가들이 체계기능언어학에 주목한 것은 관념적 체계기능의 '동사성 transitivité'[31]이다. Fowler(1991)에 따르면 동사성은 발화자가 선택한 것이고, 이 선택은 화자의 관점을 암시하므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의미하다.[32] 또한 Chilton(2005)는 동사성이 언어적으로 구성된 권력 조직을 탈구성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33]

Halliday는 텍스트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절proposition을 가장 높은 위계로 설정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절의 단위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34] 동사성에서는 절의 구성 요소를 '과정', '참여자'와 '배경요소'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과정'은 동사성을 이루는 중심 성분이자 절의 시작점이다. 참여자와 배경요소는 절 속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

[30] Halliday가 제시한 '어휘 문법'은 특정 맥락에서 문법과 어휘 중간에 위치한다는 유기체적인 개념이다. 문법을 통해 어휘가 연결된다는 구조주의적 접근이 아닌, 맥락에 의존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예시 : ne…jamais plus.

[31] 동사성'에 대한 해석은 '타동성'이나 '동성'으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들도 눈에 띄며, 이는 일반 언어학과 분리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여기에서의 동사성은 자동사와 반대되는 타동사의 개념이 아닌만큼 '동사성'으로 나타내었다.

[32]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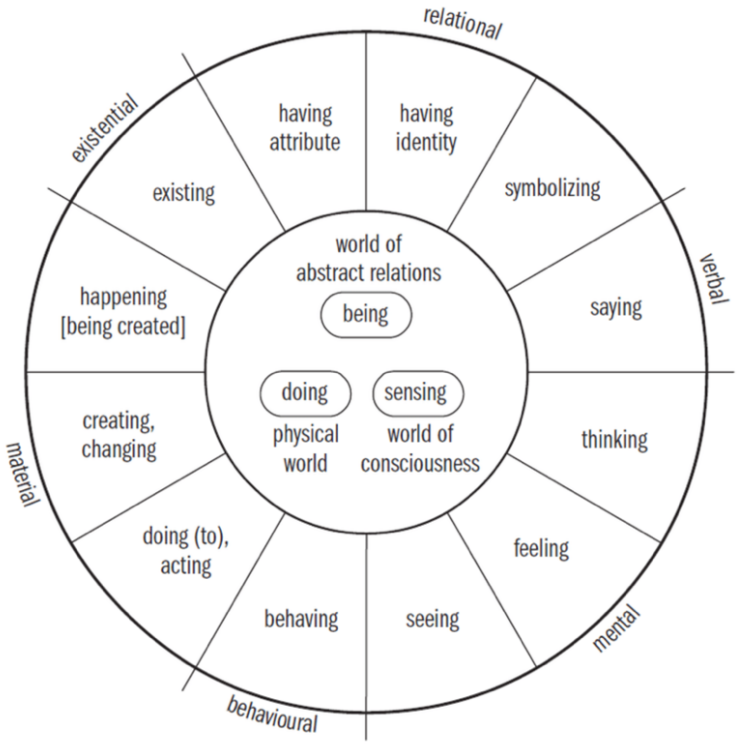
[33] Chilton, P. 2004.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p.54.

[34] 이관규 외, op.cit., pp.20-24.

2.1.2.1. 동사성 과정 유형

Halliday는 동사성 과정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물질적matérial 과정', '행태적behavioural 과정', '정신적mental 과정', '관계적relational 과정', '언어적verbal 과정', '존재적existential 과정' 이다.

[그림 4] Halliday의 동사성 과정 유형[35]



위의 여섯 가지 유형 중에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언어적' 과정이 동사성 유형의 중심을 이루고, 나머지 '행태적', '존재적' 과정은 중심적 유형에서 파생되거나 하위 형태이다. Hart(2014)에 따르면 동사성 유형

[35] Halliday, M. & Matthiessen, C.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ed.)*, Routledge. p.216.

의 여섯 가지는 고정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가 동사성 유형을 합치거나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36]

이제부터는 이러한 동사성 과정의 정의와 프랑스 신문의 정치면에서 나타난 실제 예시들을 과정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1.2.1.1. 물질적 과정

물질적 과정은 행위자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또는 행위자가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물질적 과정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활용된다. 'A가 무엇을 했는가?' 혹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이다. 의도적으로 발화자가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며 모두가 알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에도 행위자를 생략한다.

(1) Le Président se déplace dans une région qui concentre depuis des décennies des difficultés multiples.

(Le Parisien, Le 16 novembre 2021)

위 예문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동작주가 움직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se déplacer를 사용한 물질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se déplacer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자인 le Président만이 나타났다. 이 행위자는 물질적 과정이 발생하도록 유발하는 참여자이자 유일한 행동주이다.[37]

한편,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의 경우, 두 개의 참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

---

[36] Hart, 김동환 외 역, op.cit., p.53.

[37] 해당 문장을 행위자와 물질적 과정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행위자	물질적 과정
Le Président	se déplace

(2) Emmanuel Macron a visité les locaux de l'entreprise Siléane à Saint-Etienne, spécialisée dans la robotique de pointe.

(France Bleu, Le 25 octobre 2021)

위 예문의 동사 visiter는 외부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적 과정에 해당한다. 타동사인 visiter는 두 가지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데, 과정을 일으키는 '행위자'인 Emmauel Macron과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인 les locaux de l'entreprise Siléane이다.

2.1.2.1.2. 정신적 과정

정신적 과정은 물질적 과정과 다르게 외부의 세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내면 의식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한다. 정신적 과정은 내면 의식을 가진 '감지자'와 생각이나 감정의 대상인 '현상'으로 구성된다. 정신적 과정을 위한 판별용 질문은 'A가 무엇을 느꼈는가', 'A가 무엇을 생각했는가'이다.

Thompson(2013)가 제시하는 정신적 과정의 다섯가지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38]

- 최소한 한 명의 참여자를 포함할 것
- 참여자는 마음 속에서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
- 투사 projection 할 수 있을 것[39]
- '현상'은 구체적인 대상일수도 비현실적일 수도 있음
- 현재 시제일 때도 자연스러운 의미일 것

---

[38] Thompson, G. 2013.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pp.97-100.

[39] 투사란 생각을 외부세계에 옮겨놓는 과정을 뜻한다. 예컨대, 투사는 만화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풍선과 같다.

Thompson(2013)은 정신적 과정을 크게 네 가지 하위 과정으로 분류한다. 정신적 하위 과정은 **인지적**cognitif 과정(알다, 결정하다, 인정하다), **소망적**désidératif 과정(희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지각적**perceptif 과정(보다, 듣다), **감정적**affectif과정(싫다, 사랑하다, 아프다)으로 구별된다. 네 가지 정신적 하위 과정의 개념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40]

A. **인지적** 과정은 주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결정, 이해, 판단을 표현하는 savoir, décider, reconnaître, penser, douter와 같은 동사를 통해 나타난다.

(3) Emmanuel Macron a décidé d'accélérer la campagne de vaccination en France.

(France Info, Le 3 mars 2021)

동사 décider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 인지적 과정의 예문이다. 이때 감지자는 Emmanuel Macron이고, 그가 결정하고자 하는 현상은 accélérer la campagne de vaccination en France이다.

B. **소망적** 과정은 감지자의 바램에 대한 현상을 souhaiter, espérer, vouloir와 같은 동사로 나타낸다. 주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과정과 차이를 나타낸다. 아래는 소망적 과정의 한 예시이다.

(4) Emmanuel Macron souhaite une bonne rentrée aux jeunes Français.

(Le Figaro, Le 2 septembre 2021)

---

[40] Ibid., pp.99-100.

위의 예시에서 감지자는 Emmanuel Macron이고 소망적 과정에 해당하는 souhaiter 동사로 실현되었다. 그가 소망하는 현상은 une bonne rentrée aux jeunes Français인 것이다.

C. **지각적** 과정은 감지자가 외부 세계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듣는 regarder, écouter와 같은 동사로 실현된다.

(5) Le président français Emmanuel Macron regarde la statue royale du XIXe siècle d'un mi-homme mi-oiseau.

(Gala, Le 27 octobre 2021)

위의 예시에서 감지자는 Le président français Emmanuel Macron이고 regarder 동사로 지각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그가 본 것은 le statue royale로 이는 지각적 과정의 현상에 해당한다.

D. **감정적** 과정은 현상에 대한 감지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aimer, détester 등의 동사로 실현된다.

(6) Emmanuel Macron se plaît à présenter ses voeux aux Français lors d'une allocution télévisée le 31 décembre au soir.

(Gala, Le 5 janvier 2021)

위 예문에서 Emmanuel Macron은 se plaire 동사의 감지자로 나타났다. 해당 se plaire 표현은 기뻐하는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므로 감정적 과정에 해당한다.

2.1.2.1.3. 관계적 과정

관계적 과정은 개체의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낸다. 즉, 보유자가 무언

가를 소유한 상태나 공간적, 시간적 속성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관계적 과정을 위한 판별용 질문은 '보유자가 어떠한지', '보유자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이다. 아래 문장은 동사 être를 통해 보유자와 속성을 나타낸 관계적 과정의 예문이다.

(7) Emmanuel Macron est candidat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L'Express, Le 10 novembre 2021)

관계적 과정은 단순히 보유자와 속성 간의 관계의 존재성을 알릴 뿐이다. 앞서 살펴본 물질적 과정이나 정신적 과정과 달리, 관계적 과정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적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관계적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예문처럼 그저 동사 être를 통해 'candidat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이라는 속성을 보유자에게 귀속시킨다.

동사성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연구한 Anggraini et al.(2018)은 관계적 과정을 통해 보유자와 속성 간의 관계가 임의대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41] 즉, 관계적 과정은 보유자의 가치나 속성만을 알릴 뿐이기 때문에 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으로 비추어 보면, Macron 본인이 실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다른 대선 후보도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1.2.1.4. 언어적 과정

언어적 과정은 설명, 비난, 칭찬하는 등 화자가 말하는 것과 관련된다. 정신적 작용을 거쳐서 무언가 말을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어적 과정

[41] Anggraini, N. et al. 2018. Transitivity process and ideological construction of Donald Trump's speeches. *Journal of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9(1), p.35.

은 정신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의 사이에 위치한다. 언어적 과정은 신체적 행위나 정신적 목적의 다양한 측면이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 과정의 핵심은 언어를 통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8) Sur l'Algérie, Emmanuel Macron a dit publiquement ce que ses prédécesseurs disaient en privé.

(Le Monde, Le 9 octobre 2021)

위의 언어적 과정의 예시에서 화자는 Emmanuel Macron이고 언어적 과정의 참여자에 해당한다. 화자에 의해 말해진 내용이 명사화되어 표현된 말은 ce que ses prédécesseurs disaient en privé 이다.

2.1.2.1.5. 존재적 과정

존재적 과정은 물질적 과정과 관계적 과정 사이에 위치하여, 개체의 존재를 알리는 Il y a와 같은 전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존재적 과정은 개체의 속성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관계적 과정과 관련이 있지만,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물질적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9) Il y a des mots qui sont au choix masculins ou féminins […]

(Le Monde, Le 23 juillet 2021)

위 예시에서 존재적 과정을 나타내는 Il y a 라는 표현으로 화자는 '남성형 또는 여성형의 단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때 Il y a 표현 대신 '남성형 또는 여성형의 단어'를 주어로 갖는 문장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화자가 의도한 표현적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화자는

의도적으로 Il y a 라는 존재적 과정을 통해 문장을 시작함으로써, '남성형 또는 여성형 단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할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2.1.2.1.6. 행태적 과정

행태적 과정은 물질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의 경계에 위치한다. 웃음, 호흡, 기침과 같은 심리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10) Le locataire de l'Élysée sourit quand il va aborder un sujet épineux ou un point qui le met mal à l'aise.
(La Chaîne Info, Le 9 septembre 2021)

위의 예시처럼 행태적 과정은 문법적인 특징을 띠기보다는 의미적 측면에서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는 sourire와 같은 행위를 일컫는다. Le locutaire de l'Élysée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지칭하며, 여기에서 그가 불편할 때 미소를 짓는 행위는 물질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의 경계에 위치한 행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1.2.2. 배경요소

다음으로는 동사성을 이루는 '배경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물질적 과정에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 배경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11)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était à l'école Bouge dans les quartiers nord, 13e arrondissement.
(France Bleu, Le 9 septembre 2021)

위 예문에서 전치사구인 'dans les quartiers nord, 13e

arrondissement'은 배경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배경요소는 à l'école Bouge로 이미 실현된 장소를 위치적 측면에서 보강한다.

동사성에서 배경요소는 모든 과정에서 자유로이 나타나며 경험에 대한 의미적 구성을 풍부화하는데 관여한다. 때로는 절의 의미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부가어로 분류되기도 한다.

2.2.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은 다의성을 띤다. 따라서 'nous'의 지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학적 특성상 인칭대명사 'nous'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호한 경향을 띠며, 화자의 의도에 맞게 포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nous'의 다의성은 정치 담화에서 수사적 전략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Chilton(2004)은 정치 담화에서 화자가 '우리'를 통해 다양한 청중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자가 정체성, 연합체, 정당 등을 청자와 동일한 집단인 것처럼 개념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42]

2.2.1.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구분

Nous의 지시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nous가 나타난 문장에서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nous의 지시대상은 화자가 속한 집단이거나 청자 또는 둘 다 일 수 있으며, 지시대상의 주변 어휘를 바탕으로 화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치 담화 분석에서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을 분석한 대표적

[42] Chilton, P.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4, p.54.

연구 중 하나로 Fairclough(1989)의 저서를 들 수 있다. Fairclough는 정치 담화에서 인칭대명사 '우리we'가 정부와 국민 중에 어느 표현으로 가장 쉽게 대치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인칭대명사 'we'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Fairlough는 영국 수상 Thatcher의 정치 담화를 예시로 든다.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Thatcher가 we의 지시대상을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으로 바꿔가면서 담화를 펼쳐가는 점을 분석한다.

> Now we do enjoy a standard of living which was undreamed of then.
> 그 당시에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생활수준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
> (BBC Radio 3, December/17/1985)

위 예문에서 'we'와 함께 나타난 주변 어휘를 파악하여 'we'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지칭의 대상은 화자 또는 청자 안에서 주로 결정된다. Thatcher가 언급하는 'a standard of living'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Thatcher가 속한 영국 정부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문장의 의미는 어색해진다. 따라서 'a standard of living'을 누리는 주체는 영국 정부가 아니라, 현재 라디오의 청자인 영국 국민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예문은 Thatcher가 we를 통해 '영국 국민'과 같은 집단임을 나타낸 경우이다. 이러한 담화는 Thatcher가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국민과 동화되는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Thatcher : But of course, it showed that we were reliable in the defence of freedom and when part of Britain we was invaded of course we went we believed in defence of freedom we were reliable I think if I could try to sum it up in a phrase and that's always I suppose most difficult of all I would say

really resorting the very best of the British character to its former preeminence

대처 : 물론 그 전쟁이 자유의 방어에서 우리가 믿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영국의 일부가 침략을 받는 경우에, 우리는 물론 나갔고, 우리는 자유의 방어를 믿었고, 우리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에, 한 마디로 요약하라고 하시면, 그게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영국 품격을 가장 최상으로, 이전의 탁월함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BBC Radio 3, December/17/1985)

위 예문에서도 we가 나타난 주변 어휘를 파악하여 we의 지시대상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we were reliable', 'we believed in defence of freedom'의 표현은 영국 정부가 믿음직스러웠고, 영국 정부가 자유의 방어를 믿었기에 그러한 군사 전략을 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위 예문에서는 we의 지시대상을 영국 국민으로 삼기에는 문장의 의미가 어색해지므로 we는 정부를 지시한다.

한편, 라디오 청중의 입장에서 we는 일반적인 국민도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hatcher는 이러한 다의성을 활용하여 영국 정부가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을 마치 영국 국민이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Thatcher가 정치적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2.2.2.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언술 전략

이번에는 정치 담화 속에서 화자가 nous의 지시대상의 다의성을 통해 어떠한 언술 전략을 달성하는지 살펴본다. Wisniewska(2020)는 2020년 8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Joe Biden과 Donald Trump가 사용한 인칭

대명사 'we'의 지시대상을 분석하였다.[43]

당시의 대통령 후보자인 Biden과 Trump는 서로 다른 we의 지시대상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iden이 가장 선호하는 we의 지시대상은 'we-국민'이었다. 그가 '우리'로 표현할 때는 민주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를 포함한 '미국 국민'을 지칭하였다. 반면 Trump는 지난 4년 동안 Trump의 정부와 공화당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주로 'we-정부'를 사용하였다.[44]

Biden은 자신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아래 예문은 Biden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기 위해 '우리'를 언급한 경우이다.

A. We will never get our economy back on track, we will never get our kids safely back to school, we will never have our lives back, until we deal with this virus.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다시 보내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Joe Biden's speech, August/21/2020)

B. You know, America's history tells us that it has been in our darkest moments that we've made our greatest progress. That we've found the light. And in this dark moment, I believe we are poised to make great progress again. That we can find the

[43] Wisniewska, M. 2020. *Personal Deixis in the 2020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ndependent thesis on English Linguistics. Stockholms universitet.

[44] Wisniewska(2020)는 국민을 내포하는 we를 'universal we' 또는 'historical we'로 표현하였다. 정부를 내포하는 we의 경우 'royal we'로 나타냈다.

light once more.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것은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음을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순간에 나는 우리가 다시 큰 발전을 이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Joe Biden's speech, August/21/2020)

위 예문들처럼 Biden은 'we'을 언급할 때 주로 정당에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모든 '미국 국민'을 지시한다. Biden은 A의 예문처럼 현재의 청자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미국 국민을 일컫기도 한다. 또한 B의 예문처럼 역사상의 모든 미국 국민을 일컬으며 과거의 국민까지 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Biden는 정당에 상관없이, 미국의 역사와 미래를 공유하는 'we 국민'을 주로 지시함으로써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Trump는 주로 'we-정부'를 지시하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여기에서 Trump의 정부는 공화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를 내포한다. 암시적으로 '그들'인 민주당이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Trump는 'we-정부' 표현을 사용하였다.

But not only did we talk about it as a future site; we got it built.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래의 장소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구축했습니다.

(Donald Trump's speech, August/28/2020)

또한 Wisniewska는 we의 소유형용사인 our에 대한 Trump의 표현도 함께 제시하였다. 아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말

하며, 이를 통해 Trump만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When the anarchists started ripping down our statues and monuments right outside, I signed an order immediately, 10 years in prison, and it was a miracle.
> 무정부주의자들이 우리의 동상과 기념비를 바로 밖에서 철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즉시 10년형이라는 명령에 서명했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
> (Donald Trump's speech, August/28/2020)

이처럼 Wisniewska는 인칭대명사 we의 지시대상을 분석하여 Biden과 Trump의 언술 전략이 다르다는 점을 도출한다. Biden은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포용하는 '우리'를 사용하는 반면, Trump는 본인의 지지층과 연대를 계속하기 위해 '그들'과 대비되는 '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칭대명사 'nous'의 다의성에 따른 지시대상 파악 방법과 언술 전략에 대해 기술하였다. 인칭대명사 'nous'는 상황에 따라 발화자가 그 지시대상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언어학적 속성을 지닌 단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화자가 지시하는 대상을 모호하면서도 유리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담화에서 주목할 만한 어휘로 여겨진다.

2.3. 통계적 방법

이번 장에서는 CDA에서 통계적 방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더 나아가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핵심어 keyword'와 '연어변collocates'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인 'AntConc'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계적 방법은 코퍼스 언어학의 정의 중 하나인

“컴퓨터를 통해 규모가 매우 큰 텍스트로 된 다량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Wodak & Meyer 2016).[45]

비판적 담화 분석가들은 통계적 방법이 CDA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비판적 담화 분석자인 Wodak & Meyer(2016)는 통계적 방법이 CDA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46]

- “언어 변이는 체계적이며 기능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한다.
- 비판적 담화 분석가들이 순수하게 수작업으로 작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한다.
-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여 방법론적 다각화에 기여한다.
- 비판적 담화 분석가들이 실증적 기반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 텍스트로 된 데이터, 계산 빈도, 통계적 유의성 측정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추출의 방식을 보여준다.

CDA에 통계적 방법을 결합한 대표적인 학자인 Paul Baker는 통계적 방법의 이점을 주장한다. Baker(2008)에 따르면 통계적 방법이 담화 분석에 미치는 연구자의 편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통계적 방법은 연구자가 담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핵심적인 어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Baker는 연구자가 이미 파악한 담화 분석의 방향에 덧붙여, 통계적 방법으로 도출한 어휘를 함께 분석 내용에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논리를 더욱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47]

---

[45] 김현강 외 공역, op.cit., p.295.

[46] Ibid, pp.296-297.

[47] Baker, P. et al. 2008. A useful methodological synergy? Combin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orpus linguistics to exame discourses of

한편, 통계적 방법에서는 '핵심어keyword'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Baker(2004)는 핵심어가 담화 속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48]

> "Keywords will therefore not reveal discourses but will direct the researcher to important concepts in a text (in relation to other texts) that may help to highlight the existence of types of (embedded) discourse or ideology."
> 핵심어 자체가 담화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어는 연구자를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여) 해당 텍스트 안에서 (내재된) 담화의 유형 또는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때 핵심어의 유의미한 정도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중요도keyness'로 나타난다. 중요도는 참조 코퍼스 대비 분석 코퍼스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값이다. 예컨대 핵심어 분석에서는 A 코퍼스 대비 B 코퍼스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어휘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A 코퍼스에서만 특정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면 해당 단어의 중요도는 높아진다.

통계적 방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핵심어의 역할 외에도 '연어변collocates'의 역할도 주목한다. '연어변'이란 특정한 단어에 대해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주변 어휘를 뜻한다. 통계적으로 연어변을 산출하는 것은 '특정한 단어'의 좌우로 5개 단어 이내 범위에서 어떤 단어들이 공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한 단어'란

---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the UK press. London: *Discourse and Society* 19(3). p.274.

[48] Baker, P. 2004. Querying keywords: questions of Difference, Frequency, and. Sense in Keywords Analysi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2(4). pp.346-347.

통계적으로 핵심어를 산출한 결과이거나 연구자가 의도를 가지고 분석할 언어적 대상을 말한다. Baker(2008)와 Halliday et al.(2004)에 의하면 연어변 산출은 코퍼스의 크기가 충분할 때 의미를 갖는다. Baker(2008)는 코퍼스의 규모가 25,000단어보다 작으면 특징적인 연어변이 나타나기 어렵고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다.[49]

> "In some cases, the corpus used is very small (e.g., 25,000 words) [. . .] However, small corpora may lack some of the features in focus, or contain them in too small frequencies for results to be reliable, particularly when issue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not addressed."
> 어떤 경우에는 코퍼스가 매우 작을 수 있다(예: 25,000단어) [. . .] 규모가 작은 코퍼스의 경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부족하거나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너무 낮은 빈도의 연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통계적 크기가 고려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Halliday(2004)는 연어collocation를 파악함에 있어서 참조 코퍼스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 본다.[50] 여기에서 연어는 핵심어와 연어변이 함께 이루는 어휘적 관계를 말한다.

> "If they are large enough, they reveal the contexts into which words are usually embedded and with which other words they form collocations [. . .] We need reference corpora, the larger the better."
> 코퍼스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문맥이 어떤 언어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언어로 연어를 구성하는지 드러난다.

---

[49] Baker, P. et al. 2008. op.cit., p.275.

[50] Halliday, M. et al. 2004. *Lexicology and Corpus Lingsuitics*.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18.

[. . .] 우리는 참조 코퍼스가 필요한데, 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을 선별할 때 두 가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사용할 방법은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모수와 대상의 개수, 그리고 그에 따른 백분율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3.1.장에서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을 통해 아랍의 봄 전후 유의미한 변화를 지닌 분석 대상을 파악할 것이다.

담화 속 핵심어를 산출하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Laurence Anthony의 'AntConc'를 채택한다.[51] AntConc는 본 연구에 필요한 고빈도 어휘인 핵심어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메뉴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도 비교적 쉽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2] 따라서 3.2.장에서는 AntConc를 통해 산출한 핵심어 중 의미있는 어휘를 선별하여 그 동사성을 분석한다.

[51] Anthony, L. AntConc Homepage,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52] 고광윤, 2019, 『The AntConc Book, 코퍼스 분석과 활용 완벽 가이드』, *Larrabee*. p.146.

제 3 장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담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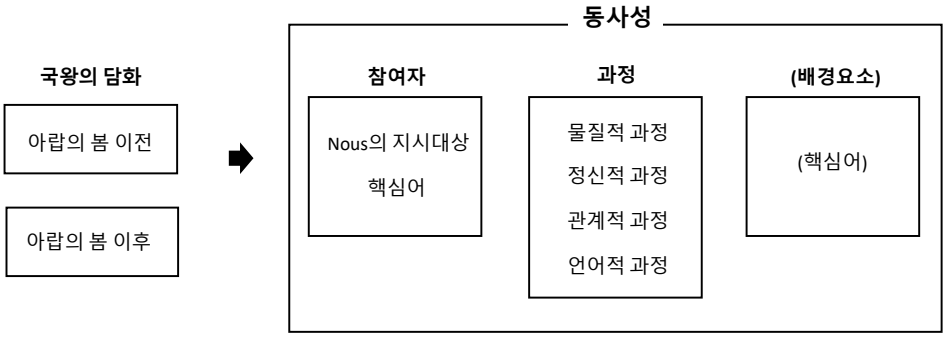
본격적인 담화 분석에 해당하는 3.1.장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방법에 대해 요약하고, 본 담화 분석의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랍의 봄 전후 국왕이 펼친 담화 속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살펴본다.

앞 장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 활용하는 ①동사성 분석 방법과 ②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분류 방법 그리고 ③분석 대상을 추출하는 통계적 방법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먼저 동사성 분석은 절proposition을 중심으로 발화자가 경험한 일련의 사태를 참여자, 과정, 배경요소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분류 방법은 발화자가 누구와 함께 일체감을 드러내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방법은 특정 담화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는 핵심어를 추출하는 것이다.

본 담화 분석의 목표는 아랍의 봄 전후로 모로코 국왕의 담화 속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왕이 담화 속에서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을 지배적으로 선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모든 동사성을 살피기에는 담화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nous의 지시대상을 동사성 속의 참여자로 정하고 이 절에서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또한 담화 속 핵심어를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여, 핵심어가 나타난 절의 반복적인 동사성 과정 유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본 연구의 담화 분석 과정은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담화 분석 과정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발화자가 동사성을 선택할 수 있고, 발화자가 선택한 동사성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53] 따라서 모로코 국왕 담화 속 'nous'의 지시대상 및 핵심어들이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으로 빈번하게 표상'되는지를 분석하여 담화 속 이데올로기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아랍의 봄 직전 해인 2010년의 모로코 국왕 담화 15편과 아랍의 봄 이후인 2011년의 담화 10편을 대상으로 한다.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에 대한 구분은 2011년 2월 20일에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시위'le mouvement du 20 février'를 기준으로 정한다.

아랍의 봄 이전 모로코 국왕 담화는 프랑스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정상회담', '드골 장군과 모하메드 5세의 연구의 날 기념사', '군관 그랑제꼴 졸업식 축사' 등에서 모로코 국왕은 프랑스와 정치 외교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담화를 펼친다. 특히 모로코가 1956년 이래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더 이상 프랑스의 보호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국왕이 담화의 많은 부분을 프랑스-모로코 간의 관계에 할애한다는 점에서 아랍의 봄 이전 담화들은 주목할 만하다.

[53] Hart, (김동환 외 역, op.cit., p53.)

아랍의 봄 이후 모로코 국왕은 담화를 통해 모로코 내치 안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인다. 국왕은 '헌법 개정 선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référendum 선언', '완성된 헌법 개혁 선언' 등을 통해 아랍의 봄 시위를 잠재우고자 한다.

아래 [표 2]와 [표 3]은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담화 목록이다.

[표 2] 아랍의 봄 이전 모로코 국왕의 담화 목록 (2010년)

2010년 1월 3일	지역화 균형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사
2010년 3월 27일	22차 **아랍 정상** 회담사
2010년 5월 14일	왕립 군 창설 54주년 기념사
2010년 5월 31일	25차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담
2010년 6월 2일	**드골 장군**과 모하메드 5세의 연구의 날 기념사
2010년 6월 17일	**프랑스**와의 연구의 날 기념사 재언급
2010년 7월 30일	모하메드 왕좌 즉위 11주년 만찬 기념사
2010년 7월 31일	군관 그랑제꼴 졸업식 축사 (**드골** 이름 수여)
2010년 8월 20일	인민 혁명 57주년 기념사
2010년 10월 23일	아동 국회 총회
2010년 10월 10일	제 2차 **아랍-아프리카** 정상 회담 연설
2010년 10월 18일	성지 순례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
2010년 10월 20일	**세계 통계의 날** 기념사
2010년 10월 26일	MENA세계 경제 포럼 참여 메세지
2010년 11월 6일	녹색 행진 35주년 기념사

[표 3] 아랍의 봄 이후 모로코 국왕의 담화 목록 (2011년)

2011년 2월 21일	국가 **구조 개혁 추진** 선언
2011년 3월 9일	**헌법 개정** 선언
2011년 3월 10일	**헌법 개정**에 대한 **전국민 투표**référendum 선언
2011년 4월 18일	다카르 **농업** 포럼 연설
2011년 4월 26일	제 4차 전국 **농업인** 대회 연설
2011년 5월 14일	왕립 군 창설 55주년 기념사
2011년 6월 17일	완성된 **헌법 개혁** 선언
2011년 7월 2일	아실라 국제 문화 개막식 기조연설
2011년 7월 15일	인민 혁명 58주년 기념사
2011년 10월 14일	제 8차 **입법부** 5기 개막식

3.1.장에서 우리는 인칭대명사 'nous'를 분석한다. 먼저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 국왕의 담화에서 인칭대명사 'nous'가 주어로 나타난 절 237개와 150개를 모두 선별한다. 이와 같이 선별한 모든 절에서 'nous'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을 분류한 후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로 각각의 지시대상의 빈도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nous'의 지시대상에 따라 동사성 과정 유형을 분류하여 시기별 차이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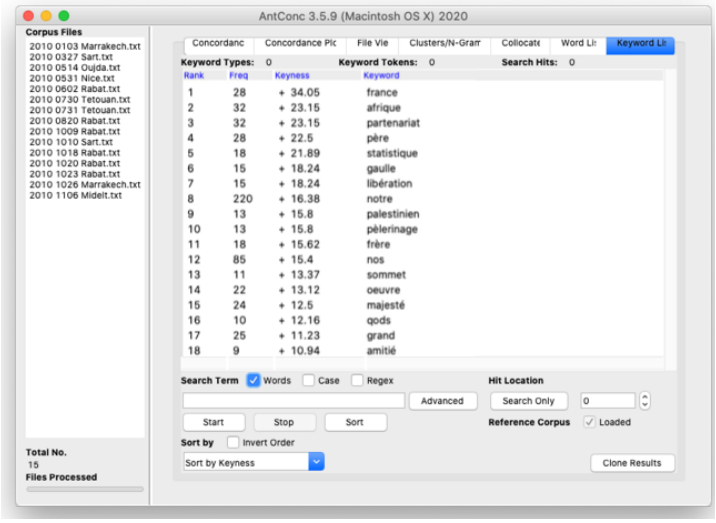
아래 <그림 6>은 담화를 분석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한 엑셀 화면이다. 상세 분석 과정을 제시하는 3.1.장에서 그 내용은 엑셀 화면이 아닌 정리된 도표로 제시될 것이다.

<그림 6> ‘Nous’의 동사성 과정 유형 분석 자료 (엑셀)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언어적	nous의 지시대상	과정	동사구	
2010.1.3	1				정부	행동적(대상)	procéder à	Nous procédons aujourd'hui à l'installation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e la Régionalis
		1			정부	인지적	considérer	Nous considérons qu'il marque le lancement d'un chantier structurant.
		1			정부	소망적	vouloir	Nous voulons qu'il constitue un tournant majeur dans les modes de gouvernance territoria
		1			정부	소망적	entendre	Nous entendons également en faire un prélude à une nouvelle dynamique de réforme ins
		1			정부	인지적	décider	avons-Nous décidé d'associer toutes les forces vives de la nation à l'effort de conception g
		1			정부	인지적	juger	Nous avons jugé opportun de créer, à cet effet, une commission consultative ad hoc.
	1				정부	행동적(수혜자)	confier	Nous en avons confié la présidence au Professeur Omar Azziman
		1			정부	인지적	tenir compte de	Nous avons tenu compte, dans la composition de cette commission de l'attachement, part
	1				정부	행동적(대상)	ancrer	Nous avons ancré l'usage dans toutes les réformes majeures
				1	정부	언어적	appeler	Nous appelons la commission à un travail d'écoute et de concertation avec les instances e
		1			정부	인지적	attendre	Nous attendons de cette commission qu'elle mette au point la conception générale d'un n
				1	정부	언어적	souligner	Nous l'avons déjà souligné (un modèle maroco-marocain de régionalisation)
		1			정부	소망적	inviter à	Nous invitons la commission à s'attacher à mettre au point un modèle maroco-marocain d
		1			정부	소망적	entendre	Nous entendons ainsi conforter la place privilégiée de notre pays
		1			정부	소망적	espérer	Nous espérons voir aboutir ce chantier fondateur à la concrétisation d'objectifs substantiels
		1			정부	소망적	vouloir	Nous ne voulons pas que les régions du Maroc de la bonne gouvernance territoriale, soien
		1			정부	소망적	entendre	Nous entendons, entre autres objectifs majeurs, placer nos provinces du Sud récupérées p
				1	정부	언어적	réaffirmer	Nous réaffirmons que cette initiative, forte de la crédibilité onusienne, reste toujours de m
			1		정부	관계적	être résolu	Nous sommes résolu à aller de l'avant dans la concrétisation de Notre détermination
		1			정부	인지적	veillier à	Nous veillerons à mettre en Œuvre avec une volonté nationale souveraine.
		1			정부	소망적	attendre	Nous attendons de chacun qu'il fasse preuve d'une forte mobilisation
	1				정부	행동적(대상)	conduire	on appréciera le succès des grandes réformes structurantes que Nous conduison
				1	국민	언어적	engager à	Nous engageons, donc, la commission à procéder à un examen approfondi des problémat
				1	정부	언어적	exhorter	(Nous) l'exhortons à mutualiser les efforts et à faire preuve d'innovation et de créativité p
		1			정부	인지적	assurer	Nous assurons cette commission de Notre soutien et de Notre volonté de suivre ses trava
		1			정부	소망적	implorer	Nous implorons le Très-Haut de guider nos pas et de nous aider à atteindre les objectifs
		1			정부	인지적	escompter	nous escomptons en faisant de la régionalisation élargie le socle de l'édifice institutionnel
	1				정부	행동적(대상)	s'attacher à	Nous nous attachons à consolider les fondements comme Etat moderne de droit, des inst
		1			정부	인지적	veillier à	Nous veillons, à cet égard, sur la concomitance et l'étroite corrélation
2010.3.27		1			정부	감정적	se féliciter	Nous nous félicitons des efforts louables
				1	정부	언어적	réaffirmer	Nous réaffirmons notre soutien à l'Autorité Nationale Palestinienne
				1	정부	언어적	réitérer	Nous réitérons notre rejet catégorique de ce plan israélien belliqueux
	1				아랍 연합	행동적(대상)	continuer	Nous continuerons à déployer les efforts intenses qui s'imposent pour faire échec aux tent
			1		아랍 연합	관계적	être soucieux	Nous sommes éminemment soucieux de poursuivre l'action
	1				아랍 연합	행동적(대상)	mener	Nous avons constamment menée (l'action) en vue de préserver le statut juridique
		1			아랍 연합	인지적	veillier à	Nous veillons à ce qu'un soutien tangible sous toutes les formes (veiller à, 신경을 쓰다)
	1				정부	행동적(수혜자)	charger	Nous chargeons l'Agence Bait Mal al-Qods al-Charif de s'y employer, en mettant en oeuv
				1	정부	언어적	réaffirmer	Nous réaffirmons la position inébranlable du Maroc en faveur de la paix
				1	정부	언어적	saluer	Nous saluons le promoteur de cette initiative, Notre très cher et illustre Frère
				1	아랍 연합	언어적	lançer un appel	Nous lançons un appel à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1	정부	언어적	réaffirmer	Nous réaffirmons, à ce titre, notre soutien absolu au Royaume d'Arabie saoudite frère dan
				1	정부	언어적	réaffirmer	Nous réaffirmons notre solidarité avec le Yémen, le Soudan, l'Irak et la Somalie
				1	정부	언어적	appeler	Nous appelons à la mise en oeuvre des résolutions issues

3.2.장에서는 시기별 핵심어를 분석한다. 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7>을 첨부하였다. 상세 분석 과정에서는 AntConc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각 시기별로 두드러지는 핵심어를 살펴보고, 핵심어가 나타난 절의 동사성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7> 핵심어 산출 과정 (AntConc)



3.1. 인칭대명사 nous 분석

이번 장에서는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을 분류하고,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지시대상에 따라 동사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정치담화에서 발화자가 '우리'의 지시대상을 상황에 따라 '국민' 또는 '정부' 등으로 달리 지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담화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시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른 동사성 과정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이데올로기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1.1.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 분류

이번 장에서는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을 분류한다. 전체 국왕 담화에서 nous는 아랍의 봄 이전에는 237번, 아랍의 봄 이후에는 150번 나타난다.

먼저 **아랍의 봄 이전**에 등장하는 nous를 지시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4>가 보여주는 것처럼, nous가 gouvernement을 지시하는 경우는 209번(88%), peuple을 지시하는 경우는 7번(2%), Relations diplomatiques를 지시하는 경우는 21번(10%) 나타난다.

반면 **아랍의 봄 이후**에 등장하는 nous의 경우, gouvernement을 지시하는 경우가 102번(68%), peuple을 지시하는 경우가 48번(32%) 나타나고, relations diplomatiques를 지시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표 4> Nous의 지시대상의 빈도 변화 (%)

단위 : 빈도, (백분율)

Référents	아랍의 봄 이전	아랍의 봄 이후
Nous - Gouvernement	209 (88%)	102 (68%)
Nous - Peuple	7 (2%)	**48 (32%)**
Nous – Relations diplomatiques	**21 (10%)**	- (0%)
Total	237 (100%)	150 (100%)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두 담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nous - gouvernement'의 지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아랍의 봄 이전에 nous의 지시대상은 '정부'가 88%로 압도적이다. 아랍의 봄 이후에는 '정부'를 지시하는 비중이 68%로 아랍의 봄 이전 대비 20% 가량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왕은 아랍의 봄 전후시기에 대부분 정부와 동일한 입장에서 담화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nous의 지시대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nous - peuple'의 비중이 **아랍의 봄 이후** 크게 증가한 점이다.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 'nous'는 국민을 지시하는 비중이 2%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아랍의 봄 이후에는 그 비중이 32%로 전체 1/3을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하였다.

셋째, nous의 지시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항은 **아랍의 봄 이전**에만 'nous - relations diplomatiques'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모로코와 외교관계에 놓인 국가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는 전혀 'nous'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은 '프랑스'와 'nous'를 통해 일체감을 드러내고자 하며,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 가지 지시대상의 변화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각 지시대상의 동사성을 분석한다. 각각의 nous의 지시대상이 어떠한 동사성 유형과 결합하여 그것이 어떠한 담화 효과를 생산하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3.1.2.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아랍의 봄 전후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을 분석한다. 앞서 3.1.1장에서 언급한 아랍의 봄 전과 후 각 시기에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 세 가지 지시대상을 동사성 속 참여자로 정하고, 해당 참여자가 나타난 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3.1.2.1.장에서는 각 시기에 일관성있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nous – gouvernement'의 동사성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3.1.2.2.장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시대상인 'nous – peuple'을 중심으로 동사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3.1.2.3.장에서는 아랍의 봄 이전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지시대상인 'nous – relations diplomatiques'에 주목하여 동사성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1.2.1. Nous – gouvernement의 동사성 분석

이 절에서는 'Nous – gouvernement'이 주어로 나타났을 때, 해당 절의 동사성의 과정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이 지시대상은 아랍의 봄 전후 시기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동사성 과정의 유형 분류를 통해 모하메드 6세 국왕 담화의 전반적인 기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동사성 분석은 'nous'가 주어로 등장했을 때 그에 동반하는 절로 한정하였다.

'Nous-gouvernement'이 주어인 절은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 209개,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는 102개로 나타난다. 앞서 Halliday가 제

시한 여섯 가지 동사성 유형 중 Hart(2019)가 선별한 네 가지 중심적 과정 유형인 '물질적 과정', '정신적 과정', '언어적 과정', '관계적 과정'으로 해당 절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54]

<표 5> Nous – gouvernement의 동사성 과정 유형 분류

단위 : 절의 개수,(백분율)

	아랍의 봄 이전	아랍의 봄 이후
물질적 과정	24 (21%)	16 (16%)
정신적 과정	**102 (49%)**	**44 (43%)**
언어적 과정	47 (22%)	28 (27%)
관계적 과정	16 (8%)	10 (10%)
Total	209 (100%)	102 (100%)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동사성 과정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정신적 과정 유형에 해당하는 절은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는 49%의 비중을 차지했고,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는 43%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과정 유형은 각각 21%와 16%, 언어적 과정 유형은 각각 22%와 2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각 동사성 과정 유형에 해당하는 절의 비중 변화에서 큰 의미를 찾기 보다는, 양 시기에서 가장 많은 동사성 과정 유형을 차지하는 정신적 과정의 동사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신적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은 Thompson(2013)이 제시한 네 가지 정신적 하위 과정을 따른다. 정신적 하위 과정은 인지적cognitif 과정, 지각적perceptif 과정, 감정적affectif 과정, 소망적désidératif 과정으로

[54] 국왕 담화 분석 시, 행태적 과정은 물질적 과정에 포함하였고 존재적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뉜다.[55]

먼저, **인지적 과정**은 결정하거나,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국왕의 담화에서는 décider, avoir à cœur, reconnaître 등으로 나타난다. **지각적 과정**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과정으로 assister등의 동사로 나타난다. **감정적 과정**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se contenter, enorgueillir, réjouir 동사들로 등장한다. 그리고 화자가 바라거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소망적 과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소망적 과정은 국왕의 담화에서는 tenir à, former le souhait, vouloir, espérer 등을 통해 표현된다.

이처럼 정신적 과정을 표현하는 절들을 보다 세밀하게 네 가지 하위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아랍의 봄 전후 시기에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Nous - gouvernement 중 정신적 과정으로 분류된 절들을 그 하위 과정으로 한 번 더 분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Nous – gouvernement의 정신적 하위 과정 유형 분류

단위 : 절의 개수,(백분율)

정신적 과정	아랍의 봄 이전	아랍의 봄 이후
인지적	39 (38%)	25 (57%)
지각적	1 (1%)	1 (2%)
감정적	4 (4%)	2 (5%)
소망적	58 (57%)	16 (36%)
Total	102 (49%)	44 (43%)

<표 6>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랍의 봄 이전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정

[55] Thompson, G. op.cit., pp.99-100.

신적 과정은 '소망적 과정'(57%)인 반면 아랍의 봄 이후 시기에는 '인지적 과정'(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아랍의 봄 전후로 'nous - gouvernement'이 주어인 절 안에서 어떤 내용이 소망적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국왕이 '무언가 바라는 주체가 되는' 소망적 과정의 유형은 **아랍의 봄 이전**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아래 예문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12) Le partage des valeurs d'amitié, … permettent aujourd'hui au Maroc d'être un partenaire privilégié de la France à laquelle il est lié par des relations stratégiques. ***Nous*** <u>tenons à rappeler</u> également la volonté du Maroc de développer et d'approfondir aussi bien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qui est si prometteur.
우리는 또한 매우 유망한 유로-지중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려는 모로코의 의지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13) ***Nous*** <u>formons le souhait</u> que ce sommet marque le début d'une nouvelle ère pour la solidarité, une ère dont les maîtres mots seront fraternité sincère, solidarité agissante et coopération pour le développement.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연대의 시대, 진정한 형제애, 적극적인 연대,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14) **Nous** <u>avons bon espoir</u> de voir triompher le bon sens et la sagesse en faisant primer l'intérêt commun sur les illusions

d'un autre âge.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상식과 지혜가 승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예문 (12)는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와의 특권적 관계를 굳건히 하고, 이 관계를 토대로 유럽-지중해 연합과의 관계 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로코 정부의 바램을 나타내는 '소망적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국왕은 'tenir à rappeler également la volonté du Maroc' 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모로코 정부의 프랑스와의 특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예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된 모로코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 '연구의 날 la journée d'étude' 기념사에 포함된 문장으로 모로코 정부의 소망을 나타내기 적합한 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이다. 또한 nous가 나타난 앞의 문장을 보면 '특권적 파트너partenaire privilégié'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때 국왕은 일관성을 가지고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문 (13)에서 국왕은 모로코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모로코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전달한다. 이때 기대하는 바는 'former le souhait'라는 표현을 통해 전달되며, 국왕은 이 정상회담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예문 (14)에서도 국왕은 'avoir bon espoir'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면 형식적인 바램이나 인사 치레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반복적인 패턴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모로코 정부는 프랑스와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소망적 과정'을 통해 단지 바라고 희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랍의 봄 이전에 국왕이 표현한 소망적 과정의 특징은 **아랍의 봄 이**

후에 나타난 'nous - gouvernement'의 인지적 과정의 대비를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다음 예문을 통해 아랍의 봄 이후 국왕이 정부를 앞세워 어떻게 태도를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5) ***Nous*** suivons la démarche résolument pour associer les forces vives de la nation aux grandes questions de développement. En nous nous félicitant de la composition pluraliste du Conseil qui réunit en son sein acteurs socio-économiques, tissu associatif et compétences scientifiques et intellectuelles, nous affirmons que nous tenons pour égaux tous les membres de cette institution.
우리는 국가의 원동력을 주요 발전에 관련한 현안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단호히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행위자, 연관 구조, 과학 및 지적 기술을 한데 모으는 이사회의 다원적 구성을 환영함으로써 우리는 이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6) ***Nous*** avons décidé d'inscrire ce processus dans le cadre d'une réforme constitutionnelle globale vouée à la modernisation et la mise à niveau des structures de l'Etat. Le Maroc a assurément réalisé d'importants acquis nationaux, grâce à l'action que nous avons résolument conduite en faveur d'un concept renouvelé de l'autorité[…]
우리는 국가 구조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전념하는 이 과정을 포괄적인 헌법 개혁의 틀 안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주도한 행동 덕분에 모로코는 확실히 중요한 국가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7) ***Nous*** avons à cœur de voir les nouvelles institutions

refléter l'esprit et la lettre de la Constitution, et incarner notre ambition collective de voir émerger des instances parlementaires et exécutives efficientes.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회 및 집행 기관의 출현을 보고자 하는 집단적 야망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 ***Nous*** vous <u>avons toujours reconnus</u> dignes de porter cette responsabilité et en étant constamment prompts à accomplir le devoir.

우리는 당신들이 항상 신속하게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책임을 지기에 합당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예문 (15)에서 국왕은 정부의 입장을 'nous'로 대변하면서, 'suivre la démarche'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정부의 결단은 '사회적 형평성'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예문이 아랍의 봄 이후 첫 대국민 담화 속에 등장한 문장임을 감안할 때 국왕의 입장 변화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왕의 '인지적 과정'을 통한 결단력 있는 모습은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문 (16)에서 국왕은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décider' 동사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예문은 대국민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국왕이 헌법 개정을 선언하게 되는 담화 속 문장이다. 국왕은 'décider' 동사를 통해 포괄적인 헌법 개혁을 착수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헌법 개정은 '국민들이 소망하는 사항들'로 구성되며, 이 사항들은 '인권 강화', '정당 및 시민 사회의 역할 강화', '공공 부문의 도덕성 확립' 등을 포함한다.

예문 (17)에서도 국왕은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avoir à cœur'를 사

용하여 주체적인 감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국왕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가진 'avoir à cœur'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헌법의 정신과 문자를 반영하는 것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문 (18)의 경우, 왕립 군위대가 아랍의 봄 시위로 인해 와해되는 것을 염려한 국왕은 'reconnaître'를 사용하여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즉, 국왕은 정부를 대변하여 왕립 군위대의 노고를 인정함으로써 왕립 군위대 보다 높은 서열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이 대외 관계를 향해서 소망적 과정으로 표현한 담화와는 달리, 아랍의 봄 이후에 국왕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감지자senseur인 정부가 어떤 현상phénomène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인지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관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왕은 국민이 바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과 헌법제도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의 봄 이후 'nous - gouvernement'은 정신적 과정 중 '인지적 과정'을 통해 어떤 사항을 결단하고 인지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아랍의 봄 이전 'nous - gouvernement'이 프랑스와의 대외관계에서 소망적 존재로 그려진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음 장에서는 'nous - peuple'의 동사성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3.1.2.2. Nous - peuple의 동사성 분석

아랍의 봄 이후에 나타난 nous의 지시대상의 특징은 'nous - peuple'을 지시하는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Nous - peuple'은 이

전 시기에는 2% 정도로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아랍의 봄 이후 시기에 그 비중이 32%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시대상이다.

아랍의 봄 이후의 'nous - peuple'은 앞서 살펴본 'nous-gouvernement'과 마찬가지로 주로 정신적 과정에 해당하는 감지자로 표현된다.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나타나는 동사들은 정신적 과정의 의미에 따른 하위 과정인 '소망적', '인지적', '감정적'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56] 각 하위 과정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 과정에 해당하는 절의 개수 내에서 각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절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랍의 봄 이후 'nous - peuple'의 정신적 하위 과정은 소망적 과정(63%), 인지적 과정(33%), 감정적 과정(4%)의 비율로 나타났다.[57]

<표 7> 아랍의 봄 이후 Nous - peuple의 정신적 하위 과정 분류

소망적(63%)	인지적(33%)	감정적(4%)
attendre(6), tenir à(3), vouloir(2), attacher à voir, poursuivre, espérer, implorer, avoir bon espoir, prier	juger (2), tenir pour, manquer de, estimer, considérer, penser	se contenter

'**소망적 과정**'은 국왕의 담화에서는 attendre, tenir à, vouloir, espérer, implorer 등의 동사를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소망적 과정'은 무언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국왕은 국민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nous - peuple'이 주어일 때 소망적 동사를 주로 사

[56] 담화 분석 시, 지각적 과정으로 분류할 동사는 없었다.

[57] 아랍의 봄 이전 'nous' 가 peuple를 지시하는 경우는 7번 나타났고, 정신적 과정은 'demeurer à la mémoire' 로 단 1번 등장했다.

용함으로써(63%) 국민이 희망하는 모로코의 모습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인지적 과정**'은 고려하거나, 믿거나,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국왕의 담화에서는 tenir pour, estimer, considérer, penser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왕이 문제점을 정의하고 국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정적 과정**'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se contenter 동사 하나로만 나타났다.

정신적 하위 과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망적 과정'(63%)이다. 국왕이 이렇게 '소망적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바라는 변화를 원한다는 표현을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소망적 동사'의 표현들은 사실상 국왕이 새로운 제도와 합법화를 만들게 되는 자연스러운 토대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 왕은 새로운 지역화 자문위원회la Commission Consultative de la Régionalisation 또는 경제 사회 이사회l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와 같은 기관들을 새롭게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담화 속에 드러낸다. 이러한 기관들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국왕이 또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Nous-peuple'의 '소망적 과정'의 의미를 아래 예문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 Etant donné que la formation est inscrite au cœur des attributions du Conseil, ***nous*** <u>attendons</u> de vous que vous proposiez des solutions efficientes à la problématique de la qualification des ressources humaines.
교육은 이사회 임무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회가 인적 자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20) ***Nous*** <u>attachons à voir</u> les partis politiques s'investir dans l'élaboration et la mise en œuvre d'une bonne gouvernance constitutionnelle. […] leur rôle ne devrait pas se limiter à présenter des conceptions devant votre honorable commission, mais ils devraient plutôt s'impliquer en permanence dans cette réforme structurelle, et ce, du début jusqu'à la fin.

우리는 정치 정당들이 훌륭한 헌법적 통치의 개발 및 구현에 정성을 쏟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명예로운 위원회에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조적 개혁에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예문 (19)에서 국왕은 '국민의 목소리로' 인적 자원에 대한 대책을 '기대하다attendre'라는 소망적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당시 담화 상황은 바로 전날인 2011년 2월 20일[58]에 모로코의 여러 도시에서 첫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진 직후였다. 그 결과 모로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응답하는 국왕의 연설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모로코의 아랍의 봄이 본격적으로 전국 시위로 번지게 된 것은 일자리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때, 국왕은 현재의 취업난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의 목소리로 나타내면서 대책 수립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vous'는 경제사회 이사회l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이다. 이는 'nous - peuple'의 맞은편에 선 'vous - conseil'와의 대립을 통해 국왕이 국민의 편에 서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즉,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호소하는 사항을 국왕이 소망적 동사를 통해 표현하였고, 이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불러오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 (20)에서도 국왕은 '소망적 동사'인 attacher à voir를 이용하여

[58] 본 논문에서는 2011년 2월 20일을 기점으로 '아랍의 봄'의 전과 후를 구분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 국민을 정치 정당에 올바른 헌법 통치를 바라는 존재로 나타낸 것이다. 이 예문이 나타난 담화 상황은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référendum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처럼 국왕의 담화는 ‘nous – peuple’가 주어인 절에서 소망적 동사로 주로 표현한 반면 ‘nous – gouvernement’가 등장한 절에서는 인지적 동사를 통해 주로 표현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의 서열관계를 내포한다. 국민은 희망하고 바라는 존재이고, 정부는 이 문제점을 결정하고 인식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다.

3.1.2.3. Nous – relations diplomatiques의 동사성 분석

아랍의 봄 이전 담화의 특징은 모로코와 외교관계에 놓인 다른 국가와 ‘nous’를 통해 일체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nous’를 통해 국왕이 프랑스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nous’가 등장하는 절의 동사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들 사이에는 서열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왕은 프랑스 또는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주체로 등장할 때 두 가지 다른 동사성을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주체로 나타날 때는 ‘인지적 과정’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주체로 나타날 때에는 ‘소망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걱정을 하거나 신경을 쓰는 존재로 표현하고, ‘아프리카’는 프랑스 앞에서 항상 소망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드러났다.

먼저, 국왕이 ‘프랑스’와 함께 nous로 나타난 경우를 살펴본다.

(21) ***Nous*** <u>partageons également la même préoccupation</u> quant au développement et la stabilité de l'Afrique à la

préservation de l'intégrité de ses Etats, surtout dans notre voisinage immédiat, le Maghreb et les pays du Sahel.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과 안정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공유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인 마그레브 및 사헬 국가에서 국가의 완전성을 보존합니다.

(22) Ainsi, le Sahara marocain sera en tête des bénéficiaires du processus de régionalisation avancée. ***Nous*** <u>déployons les efforts soutenus</u> en faveur du développement solidaire de nos provinces du Sud.
따라서 모로코 사하라 사막은 선진 지역화 프로세스의 수혜자의 선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부 지방의 통합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문 (21)에서 '프랑스와 모로코'는 동등한 감지자senseur로 나타나 아프리카를 걱정하고 관심을 주는 존재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partager la même préoccupation라는 인지적 동사를 통해 표현되었다. 당시 모로코의 연구의 날을 맞이하여 국왕이 프랑스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자 기념사를 펼친 상황으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예문 (22)에서도 '프랑스와 모로코'는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는 déployer les efforts 표현을 통해 인지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예문 (21)과 마찬가지로 이 예문에서도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이지만, 모로코는 프랑스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개발과 안정성'을 신경쓰는 존재로 표현하여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모로코와 프랑스'가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동사성 과정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아프리카l'Afrique와 남부 지역provinces du Sud은 배경요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서열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59]

[59] 여기에서의 남부 지역provinces du Sud는 모로코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nous'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23) ***Nous*** entendons unir nos efforts au sein de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우리는 지중해 연합 내에서 우리의 노력을 통합하고 싶습니다.

(24) ***Nous*** avons aussi tenu à développer la coopération technique, avec un nombre important de pays africains frères, dans les secteurs sociaux de base.
우리는 기초 사회 부문에서 기술 협력 분야를 많은 형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Nous'의 지시대상이 프랑스를 포함할 때와는 달리, 모로코가 아프리카와 함께 'nous'로 나타났을 때에는 '소망적 과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는 모로코의 바램을 드러낸다.

예문 (23)에서 '모로코와 아프리카'는 함께 노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소망적 의지를 'entendre unir'라는 소망적 동사를 통해 표현한다. 여기에서 모로코가 노력을 통합하자는 의지는 '지중해를 향하고pour la Méditerranée' 있다. 지중해는 유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특권적 관계를 통해 모로코가 지중해 연합의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드러낸다.

예문 (24)는 모로코와 아프리카는 '기초 사회의 부문을 개발하고 싶다 tenir à développer'라는 소망적 표현을 사용하여 프랑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 25회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담 속 담화 내용으로 국왕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소

의미한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후발개도국을 지원하는 남남협력la coopération Sud-Sud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op.cit., p.73.)

망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아랍의 봄 전후에 나타난 인칭대명사 'nous'의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을 분석한 결과, 모로코 국왕의 담화 속 '정신적 하위 과정'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랍의 봄 전후 담화에서 지시대상에 따라 '소망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면서 지시대상간의 서열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인지적 과정'**의 주체는 문제점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존재로, 바라거나 희망하는 **'소망적 과정'**에서의 주체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우위적 위치에 있는 인지적 과정의 주체는 아랍의 봄 이전에 'nous-France'에서 아랍의 봄 이후는 'nous-gouvernement'으로 변화하였다.

3.2. 핵심어 분석

이번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나타난 핵심어의 동사성을 분석한다. 2.3.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계적으로 도출한 핵심어를 CDA와 결합하면 연구자가 이미 파악한 담화 분석의 방향에 덧붙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담화 속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반복적인 어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60] 따라서 3.1.장에서 분석한 인칭대명사의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의 흐름을 참조하여 핵심어 분석을 진행한다.

3.2.1.장에서는 통계적 방법인 AntCon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어를 도출하고, 동사성을 분석할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 핵심어를 정의한다. 3.2.2.장에서는 각 시기 핵심어의 동사성을 분석한다.

3.2.1. 핵심어 선정

이번 장에서는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 모로코 국왕의 담화에서 반복적

[60] Baker, P. op.cit., 2008. pp.273-306.

으로 나타나는 어휘인 핵심어를 파악하고, 주요 핵심어가 나타난 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담화의 핵심어를 산출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Laurence Anthony가 개발한 AntConc 프로그램를 활용한다.

AntConc에 적용한 코퍼스는 아랍의 봄 이전 담화 15개(22,828단어)와 아랍의 봄 이후 담화 10개(18,583단어)이다. AntConc는 두 코퍼스 간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중요도keyness에 따른 핵심어를 산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도는 참조 코퍼스 대비 분석 코퍼스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값이다. 예컨대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 대비하여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만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단어인 경우, 이 단어의 중요도는 높아진다.

<표 8>과 <표 9>는 AntConc를 통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아랍의 봄 전후 담화에서 산출한 핵심어 목록이다.[61]

[61] 해당 핵심어는 log-likelihood(4-term) 통계테스트를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이다.
유의미한 담화 분석을 위해 프랑스어 lemma list(Benoît Sagot개발)를 AntConc에 적용하여 관사 및 복수형 등의 문법 요소를 통제하였다.

<표 8> 아랍의 봄 이전 상위 10개 핵심어 (2010년)

	핵심어	빈도	중요도
1	France	28	34.05
2	Afrique	32	23.15
3	Partenariat	32	23.15
4	Père	28	22.5
5	Statistique	18	21.89
6	Gaulle	15	18.24
7	Libération	15	18.24
8	Notre	220	16.38
9	Palestinien	13	15.8
10	Pèlerinage	13	15.8

<표 9> 아랍의 봄 이후 상위 10개 핵심어 (2011년)

	핵심어	빈도	중요도
1	Constitution	53	79.09
2	Constitutionnel(le)	50	68.26
3	Agricole	46	61.95
4	Conseil	58	43.49
5	Institution	48	37.74
6	Prévoir	22	24.99
7	Alimentaire	17	21.6
8	Agriculteur	13	21.55
9	Pouvoir	60	20.4
10	Constitutionnalisation	12	19.89

아랍의 봄 이전 주요 핵심어 중에 **'프랑스France'**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다.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는 France가 28번 나타나고, 아랍의 봄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는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 사르코지 대통령과 외교담화, 프랑스 드골 장군 추모 등 모로코 국왕은 프랑스와 외교 관계에 치중한 담화를 펼치고 있다. 반면, 아랍의 봄 이후에는 모로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응답하는 담화이기 때문에 France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랍의 봄 이전시기에는 France를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 선정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단어는 **'아프리카Afrique'**이다.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는 'Afrique'가 32번 나타나고, 아랍의 봄 이후에는 3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왕은 아랍의 봄 이전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 아랍-아프리카 정상회담, MENA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하여 아프리카와 관련된 담화를 펼쳤다.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단어는 **'동반 관계Partenariat'**이다.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반 관계는 앞서 나타난 핵심어인 France나 Afrique와 함께 같은 문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은 핵심도를 차지한 France, Afrique, Partenariat 세 단어에 대한 상세 예문은 3.2.2.1.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앞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세 단어 외에도,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 중에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타난다. 이 단어들은 드골 장군에 해당하는 '(De) Gaulle'과 두 국가가 이룬 '해방Libération'이다.[62]

먼저 (De) Gaulle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62] 해당 두 단어들은 각 15번 담화에 등장하여, 반복적인 동사성을 살피기에는 절대적인 빈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예문을 통해 문장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25) En effet, à travers deux personnalités d'exception, Mon Grand-père, Sa Majesté le Roi Mohammed V et feu le Général De **Gaulle**, que Dieu les ait en Sa Sainte Miséricorde, le Maroc et la France ont scellé, dans des circonstances dramatiques, une alliance sacrée et pérenne. Elle reposait sur la volonté d'affranchir, en priorité, l'humanité, en Europe et dans le monde, du joug du nazisme et du fascisme.
사실상 두 명의 뛰어난 인물인 나의 할아버지인 모하메드 5세 폐하와 故 드골 장군을 통해, 신이 당신의 거룩한 자비로 그들을 허락하시기를, 모로코와 프랑스는 극적인 상황에서 신성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 동맹은 나치즘과 파시즘의 멍에에서 유럽과 세계의 인류를 우선적으로 해방시키려는 의지에 기초했습니다.

위 예문에서 De Gaulle은 모로코와 프랑스 간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인물로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 핵심어로 나타났다. De Gaulle 장군은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해방하기 전에는 프랑스 총리였고,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해방한 후에는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모로코 국왕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모하메드 5세와 함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한 인물로 담화 속에서 거론된다. 특히 모로코와 프랑스 간 동맹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다.

다음으로 **libération**이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본다.

(26) L'histoire de la **libération**, en France comme au Maroc, a mis en communion deux héros symbolisant la volonté de consolider les valeurs de liberté, de fraternité et d'égalité.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해방의 역사는 두 영웅을 일치시켰습니다. 이 두 영웅들은 자유, 박애, 평등의 가치를 공

고히 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프랑스가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libération은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 핵심어 중 하나이다. 국왕은 모로코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libération을 기반하는 나라로 드러내기 위해 이 단어를 담화 속에 자주 배치한다. 국왕은 두 국가의 정신적 공통점으로 모로코가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 박애, 평등를 기반하는 국가임을 가정한다.

이처럼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의 특징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France 뿐만 아니라 다른 두 핵심어도 프랑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왕은 담화 곳곳에 프랑스의 역사적 인물인 De Gaulle 장군과 프랑스와 공통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libération을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국왕은 모로코가 프랑스와 함께 역사적 공감대를 가지고 동일한 정신적 가치를 지닌 나라인 것으로 표현한다.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핵심어는 **'헌법Constitution'**이다.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총 53번 나타나지만, 아랍의 봄 이전에는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담화에서도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왕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국왕은 새로운 위원회와 기관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하고자 하였으며,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꾀한다. 이러한 헌법constitution에서 파생하는 단어들인 constitutionnel(le), constitutionlisation 또한 핵심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랍의 봄 이후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헌법'을 중심으로 3.2.2.2.장에서 동사성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핵심어는 **'헌법적인 constitutionnel'** 이다.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총 50번 나타나지만,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Constitutionnel 단어는 담화 속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부가형용사 épithète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 형용사가 절 속에서 특정한 동사성 유형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래 문장처럼 Constitutionnel(le)은 projet 또는 réforme와 같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나타났다.

(27) Tu me trouveras, peuple fidèle, en première ligne, parmi ceux qui s'investissent dans la mise en œuvre optimale de ce projet **constitutionnel** avancé.
충실한 사람들이여, 이 선진 헌법 과제의 최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 A partir de ces prémisses référentielles immuables, nous avons décidé d'entreprendre une réforme **constitutionnelle** globale, sur la base de sept fondements majeurs.
이러한 불변의 참조 전제에서 우리는 7가지 주요 기반으로 포괄적인 헌법 개혁을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핵심어는 **'농업의 agricole'**이다. 아랍의 봄 이후 담화에서 46번 차지하는 형용사로, 당시 국왕은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언급하였다. 농업은 모로코의 전통적인 기반 산업 중 중요한 사항으로 당시 모로코 전체 GDP에 14%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 42%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63] 따라서 국왕은 농업에 대해 자주 언

[63] Harbouze, R. et al. 2021. *Rapport de synthèse sur l'agriculture au Maroc*. HAL

급하는 것은 일자리 부족 문제와 경제적 형평성에 불만을 일으킨 당시의 시위대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constitutionnel(le)처럼, agricol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동사성 유형이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래의 두 예문처럼 agricole은 '농업의 미래avenir agricole'와 '농업분야의 현대화 modernisation du secteur agrciole'처럼 명사의 의미를 확장하는 부가 형용사의 역할로 나타났다.

(29) L'avenir **agricole** et la sécurité alimentaire de notre pays reposent. principalement sur la force de travail et le labeur de nos agriculteurs.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와 식량안보는 주로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과 노고에 달려 있습니다.

(30) Nous réaffirmons ainsi l'intérêt tout particulier que Nous attachons à la modernisation du secteur **agricole**. Nous tenons également à en voir rehaussées la productivité et la compétitivité.
따라서 우리는 농업 부문의 현대화에 부여하는 매우 특별한 관심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향상된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고 싶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의 특징은 법적 제도와 장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constitution 외에도, **'위원회conseil'**와 **'제도instutition'**가 핵심어로 나타났다. 국왕은 '헌법 개정 선언', '헌법 개정에 대한 전국민 투표 선언', '완성된 헌법 개혁 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와 제도를 계속해서

archives-ouverts(02137637). pp.16-22.

만들고 언급하면서 본인의 개혁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 중 제도와 위원회를 의미하는 constitution, conseil, institution에 따른 동사성 과정 유형을 3.2.2.2.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2.2.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3.2.2.1.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이 절에서는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인 France, Afrique, partenariat의 동사성을 순서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France는 모로코와 함께 인지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난다. 국왕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 국민이 '프랑스와 모로코'가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아래 인지적 과정으로 나타난 두 가지 예문을 살펴본다.

(31) Cette rencontre constitue une excellente opportunité pour évoquer de grands moments historiques, qui ont forgé la mémoire commune que le Maroc et la France ont en partage.

이 만남은 모로코와 프랑스가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을 구축한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 예문에서 France는 모로코와 함께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partager la même mémoire 인지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인지적 과정**은 담화의 청자인 모로코 국민과 프랑스로 하여금 국왕의 견해에 공감하도록 격려하는 장치이다. 국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모코로와 프랑스

가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한 긴밀한 관계이며, 공동의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모로코는 더 이상 프랑스의 보호령 국가가 아니지만, 국왕은 프랑스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이자 '긴밀하게 연대하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견해를 인지적 과정을 통해 나타낸다.

(32) Le Maroc et la **France** s'attachent à consolider ces mêmes idéaux dans le cadre d'un partenariat stratégique exemplaire.
모로코와 프랑스는 모범적인 동반 관계의 틀 내에서 동일한이상을 공고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문 (32)도 마찬가지로 '모로코와 프랑스'가 함께 동일한 이상idéaux을 위해 노력하는 s'attacher à consolider 주체로 그려진다.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 모로코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정신적 공동체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상idéaux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 모로코가 프랑스와 전략적 동반관계 partenariat stratégique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왕은 언어적 장치로써 인지적 과정을 활용하여 '모로코와 프랑스'를 함께 생각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적 공동체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어인 **Afrique**는 동사성의 배경요소로 등장한다. Afrique는 배경요소의 유형 중 주로 장소적 위치를 보강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는 앞서 France가 인지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아래 아랍-아프리카 정상 회담 연설에서 Afrique가 나타나는 예문 두 가지를 살펴보자.

(33) Face à cette situation inquiétante, Nous avons proposé, le mois dernier, qu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organise un dialogue au plus haut niveau sur l'investissement en **Afrique**.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아프리카 투자에 관한 최고 수준의 협상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4) Il <u>continuera à oeuvrer</u> résolument et avec force pour soutenir les intérêts vitaux de l'**Afrique**, tant au niveau multilatéral, comme l'ONU.
모로코는 유엔처럼 다국적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중요한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단호하고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두 예문에서처럼 Afrique는 문장 내 배경요소로 등장하여 생략이 가능한 부가어로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한다. 예문 (33)에서 국왕은 Afrique를 문장 내에서 투자investissement의 위치적 의미를 보강하는 배경요소 역할로만 나타낸다. 해당 절에서는 유엔 총회가 물질적 과정의 주체적인 동작주로 나타나는 반면, Afrique는 생략이 가능한 배경요소로 위치한다. 이러한 반복적 패턴은 예문 (3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frique는 또 다시 문장 안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가어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어 il은 모로코를 지칭하며, continuera à œuvrer 동사구 표현과 함께 물질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난다. 한편 Afrique는 중요한 이익 les intérêts vitaux에 대한 위치적 의미를 보태는 부가어로 등장한다. 모로코는 물질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나 아프리카 안에서 우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Afrique는 생략이 가능한 배경요소로 배치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는 **partenariat**이다. Partenariat는 국가에 따라 동사성 유형의 차이를 보인다. 아프리카와 함께 나타날 경우 이 어휘는 관계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반면, 프랑스와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물질적 과정으로 표현된다.

먼저 partenariat가 아프리카와 함께 쓰인 대표적인 예문을 살펴본다.

(35) Aujourd'hui, l'implication de la communauté des affaires, et plus particulièrement de l'entreprise responsable, constitue, à la fois, un levier déterminant pour le développement, la croissance et l'emploi en Afrique, et un facteur de renforcement de notre **partenariat**.
오늘날, 비즈니스 공동체의 참여, 특히 책임 있는 회사의 참여는 아프리카의 개발, 성장 및 고용을 위한 결정적인 지렛대이자 우리의 동반 관계를 강화하는 요소를 구성합니다.

위 예문은 '아랍-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partenariat가 Afrique와 함께 표현된 경우이다. 해당 표현은 constituer 동사를 통해 관계적 과정에 해당한다. 이때 partenariat는 관계적 과정의 속성으로 나타났고, implication이 속성의 보유자이다. 즉, 국왕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협력을 가담할 것을 동반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과정으로 나타나 뚜렷한 주체적 행동주는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연구의 날 la journée d'étude' 기념사에 partenariat가 프랑스와 함께 나타난 물질적 과정의 예문들을 살펴본다.

(36) C'est sur ces bases que nos deux pays ont bâti un destin commun qui nous permet aujourd'hui de mettre en avant un **partenariat** d'exception. Le partage des valeurs d'amitié, de coopération, de solidarité, d'attachement à la démocratie, d'ouverture et de respect mutuel, [...]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양국은 오늘날 우리가 탁월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의 운명을 건설했습니다. 우정, 협력,

연대,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개방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

(37) Nous continuons à œuvrer avec Notre Cher Ami, Son Excellence le Président Nicolas Sarkozy, au raffermissement de ces relations pour les hisser au niveau d'un **partenariat** stratégique, dans l'intérêt bien compris de nos deux peuples amis.
우리는 친애하는 친구 Nicolas Sarkozy 대통령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우리의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 관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는 양국의 우호적인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자 합니다.

위 예문에서와 같이 partenariat가 France와 함께 표현된 문장에서는 모로코와 프랑스가 함께 동반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때 두 국가가 함께 물질적 과정의 동작주인 'nous'로 등장하였고, mettre en avant과 continuons à œuvrer 라는 동사구를 이끄는 주체로 나타난다. 또한 아프리카와의 동반 관계에서는 별 다른 부가어가 없었으나, 프랑스와의 동반 관계는 예외적인d'exeption 또는 전략적인 stratégique과 같은 부가어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와의 동반 관계와는 차이를 보였다.

3.2.2.2.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의 동사성 분석

이번 장에서 동사성 분석을 할 단어들은 constitutuion, conseil, institution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constitution**'은 주로 관계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국왕은 '관계적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로코의 모습을 헌법에

투영한다. 관계적 과정에 나타나는 속성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Halliday & Matthiessen(2014)에 따르면 관계적 과정은 물질적 과정이나 정신적 과정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64] 따라서 헌법이 실질적으로 발현된 결과나 영향력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아래 두 관계적 과정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38)[…] les mécanismes qu'induit le caractère parlementaire du régime politique marocain. Celui-ci, en effet, repose, dans ses fondements, sur les principes de souveraineté de la Nation, la prééminence de la **constitution** comme source de tous les pouvoirs […]
사실 모로코의 정치 체제는, 그 토대에 국가 주권의 원칙, 헌법의 우수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9) De ce fait, la **constitution** marocaine sera une constitution des droits de l'Homme, un véritable pacte des droits et des obligations de la citoyenneté.
결과적으로 모로코 헌법은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협약인 인권 헌법이 될 것입니다.

예문 (38)에서 국왕은 'reposer sur' 동사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을 관계적 과정으로 나타낸다. 이 예문에서 국왕은 모로코의 정치 체제가 '국가 주체성'과 '헌법 우선주의'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국가 주체성'과 '헌법 우선주의'는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용어로 아랍의 봄 이전 담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국왕은 이러한 용

[64] Halliday, M. & Matthiessen,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Routledge. p.259.

어를 ‘관계적 과정’에 해당하는 ‘reposer sur’ 동사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관계적 과정은 동사성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체의 속성의 상태’만을 말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관계적 과정은 국왕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예문 (39)에서 국왕은 관계적 과정에 해당하는 ‘être’ 동사를 통해 모로코 헌법이 ‘인권’과 ‘시민의 의무’에 관한 헌법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모로코 헌법의 속성에 대해 ‘인권’과 ‘시민’ 이라는 용어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고자 한 것이다. 국왕은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 대신,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계적 과정’을 통해 표현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conseil**와 **institution**에서 드러나는 소망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랍의 봄 이후 국왕은 국민을 지칭하는 ‘nous’와 소망적 과정에 해당하는 동사구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위원회와 제도가 마치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이를 정당화한다.

(40) Par ailleurs, et afin que les jeunes puissent disposer d'un espace institutionnel d'expression et de discussion, <u>nous avons tenu à</u> créer un **conseil** de la jeunesse et de l'action associative, formant une force de proposition.
또한, 청소년들이 표현과 토론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청소년 위원회와 연합 활동 협의회를 만들어 제안하는 힘을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41) <u>Nous avons à cœur de voir</u> les nouvelles **institutions** refléter l'esprit et la lettre de la constitution, et incarner

notre ambition collective de voir émerger des instances parlementaires et exécutives efficientes.
우리는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 및 의회 기관의 출현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집단적 열망을 구체화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와 제도는 소망적 과정을 통해 국왕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합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예문은 공통적으로 국민을 의미하는 '우리nous'와 함께 소망적 과정에 해당하는 동사구를 사용한다. 예문 (40)을 살펴보면, 국민을 내포하는 '우리'가 청소년 위원회를 원했다는 tenir à 표현을 통해 국왕은 해당 위원회의 설립을 정당화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 위원회 뿐만 아니라 Conseil de Economique et Social, Conseil de l'Education, Conseil 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등 수 많은 위원회가 생겨나는데, 이는 국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예문 (41)의 경우, 국민을 내포하는 '우리'와 함께 소망적 과정의 대상으로 institution을 나타낸다. 또한 소망적 과정을 나타내는 avoir à cœur de voir 표현을 통해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정당화한다.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국왕의 여러 역할과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3.3. 동사성 분석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 분석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아랍의 봄 전후 모로코 국왕의 담화 속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합하고자 한다.

Van Dijk(1993)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인지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인지는 권력의 언어에 의해 형성되고, 사람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65] 따라서 국왕 담화 속 동사성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인지적 과정'의 주체를 살펴봄으로써 권력이 형성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국왕 담화 속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핵심어를 통해 권력이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의 배경과 함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왕 담화 속 인지적 과정의 주체와 핵심어는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에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10> 아랍의 봄 전후로 나타난 지시대상에 따른 동사성 변화

	아랍의 봄 이전 **"프랑스와 특권적 관계의 이데올로기"**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
인지적 과정 (판단의 주체)	Nous – France	Nous - gouvernement
소망적 과정 (바라는 존재)	Nous – gouvernement	Nous – peuple
핵심어	France (인지적 과정)	Constitution (관계적 과정)

먼저 아랍의 봄 이전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는 '**프랑스와 특권적 관계의 이데올로기**Idéologie de relation privilégiée avec la France'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인지적 과정의 주체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nous – France'이다. 이에 반해 'nous – gouvernement'은 소망적 과정의 주체로서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라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핵심어가 France이며, 프랑스가 주로 인지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 역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65] 김현강 외 공역, op.cit., p.32-33.

아랍의 봄 이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Démocratie' 라고 볼 수 있다. 아랍의 봄 이후는 'nous - gouvernement'이 인지적 과정의 주체이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nous - peuple'이 소망적 과정의 주체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핵심어인 constitution은 관계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데, 헌법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상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담화 속 이데올로기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향한다. 다만, 핵심어인 헌법이 실제적인 변화를 내포하지 않는 관계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권력의 주체인 국왕은 구체적인 행동이 결여된 구호성 차원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전후로 나타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담화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왕 담화 분석을 위한 도구인 동사성 분석, 인칭대명사 ‘우리’의 지시대상 변화, 그리고 통계적 방법 등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로코 국왕이 지시하는 nous의 대상은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로 차이가 있었다.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은 nous를 통해 주로 ‘정부’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 국왕의 담화는 외교 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프랑스’와 함께 일체감을 보이고자 하였다. 아랍의 봄 이후 국왕은 여전히 nous를 언급할 때 ‘정부’를 내포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외교 관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사라진 대신 ‘국민’을 언급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왕이 내포하는 nous의 지시대상에 따라 어떤 동사성 과정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아랍의 봄 이전 ‘nous-gouvernement’은 정신적 하위 과정인 ‘소망적 과정’이 주로 나타나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라는 존재로 나타났다. 아랍의 봄 이후 ‘nous-gouvernement’은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인지적 과정’의 주체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현저히 증가하는 지시대상인 ‘nous - peuple’은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소망적 과정’으로 그려졌다.

국왕의 담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의 높은 빈도의 어휘를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는 ‘France’, ‘Afrique’, ‘partenariat’와, 프랑스와 연관된 ‘libération’, ‘Gaulle’과 같은 어휘가 있었다.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nel’, ‘conseil’, ‘institution’ 등으로 주로 제도와 위원회와 관련하였다.

시기별 핵심어에 따른 동사성을 분석하여 반복적인 동사성 과정 유형이 나타나는지 교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랍의 봄 이전 핵심어인 France는 판단의 주체인 ‘인지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아랍의 봄 이후 핵심어인 constitution은 속성의 상태만 나타나고 직접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관계적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왕의 담화 속에서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아랍의 봄 이전 국왕의 담화는 ‘프랑스와 특권적 관계의 이데올로기 Idéologie de relation privilégiée avec la France’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고, 아랍의 봄 이후 국왕의 담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Démocratie’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대상을 산출하였으나 핵심어에 따른 연어변 등 면밀한 기여 요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양의 담화를 확보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로 정치학에서 다뤄온 주제인 모로코의 ‘아랍의 봄’에 대해 새로운 언어학적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비판적 담화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은 프랑코포니 군주제 국가의 담화 연구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분석 자료 :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담화

https://www.maroc.ma/fr/discours-du-roi?field_type_discours_royal_value_i18n=All&date_discours%5Bvalue%5D%5Byear%5D=2010&page=2

2. 참고 문헌

Anggraini, N. et al. 2018. Transitivity process and ideological construction of Donald Trump's speeches. *Journal of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9(1). 26-44.

Allansson, M. et al. 2012. *Sipri yearbook 2011.*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Baker, P. 2004. Querying keywords: questions of Difference, Frequency, and Sense in Keywords Analysi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2(4). 346-359.

Baker, P. 2006. *Using Corpora in Discourse Analysis*. London: Continuum.

Baker, P. et al. 2008. A useful methodological synergy? Combin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orpus linguistics to exame discourses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the UK press. *Discourse and Society* 19(3). 273-306.

Baker, P. & Gabrielatos, C, & McEnery, T. 2012. Sketching Muslims: A Corpus Driven Analysis of Representations Around the Word 'Muslim' in the British Press 1998-2009. *Applied linguistics* 34(3). 255-278.

Banks, D. 2019.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English: A simple*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Banks, D. 2017.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 New York: Routledge.

Brouwer, L. & Bartels, E. 2014. Arab Spring in Morocco: social media and the 20 February movement. *Afrika Focus* 27(2). 9-22.

Caffarel, A. 2006.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 from grammar to discourse*. London: Continuum.

Chilton, P. 2004.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Duke, M. 2016. Manufacturing consent in Maghreb: How Mohammed VI in Morocco survived the Arab Spring. *Dissertation and Theses* N° 3413.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London: Pearson education. (김지홍 역, 2011, 『언어와 권력』, 경진출판).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이원표 역, 2001,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Fairclough, N. 2000. *New Labour and New Language*. London: Routledge.

Fa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이정우 역, 1993,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Halliday, M. et al. 2004. *Lexicology and Corpus Lingsuitics*. London: Bloomsbury Academic.

Halliday, M & Matthiessen,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Routledge.

Harbouze, R. et al. 2019. *Rapport de synthèse sur l'agriculture au Maroc*. HAL archives-ouverts N° 02137637.

Hart, C. 2014. *Discourse, Grammar and Ideology*. London: Bloomsbury Academic. (김동환 & 이미영 역, 2017, 『담화, 문법, 이데올로기』, 로고스라임).

Khan, M, H. et al. 2019. Muslims' Representation in Donald Trump's Anti-Muslim-Islam Statemen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ligions* (10)115. 1-16.

Mu, J, F. & Zhao, H, Y. & Yang, G. 2021.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Reports about China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New York Times. *Open Access Library Journal* 8 (8). 1-16.

Thompson, G. 2013.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Toolan, M. 1997. What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why are people saying such terrible things about it. *Language and Literat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Stylistics* 6(2). 83-103.

Van Dijk, T. A. 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 (2). 249-283.

Wisniewska, M. 2020. Personal Deixis in the 2020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ndependent thesis on English Linguistics. *Stockholms universitet*.

Wodak, R. & Meyer, M. 2016.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3rd edition). London: Sage. (김현강 외 공역, 2021, 『비판적 담화 연구의 방법들』, 경진출판).

Yom, S, L. & Gausse, G. 2012. Resilient Royals: How Arab Monarchies Hang On. *Journal of Democracy* 23(4). 74-88.

고광윤, 2019,『The AntConc Book, 코퍼스 분석과 활용 완벽 가이드』, Larrabee.

사희만, 2017, 『아랍의 언어와 정치』, 한국학술정보.

신동일, 2018,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권 3호, 1-42.

외교부, 2018,『2018 모로코 개황』, 외교간행물.

이관규 외 9인, 2021,『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이원표, 2015,『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문화사.

최윤선, 2014,『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최윤선, 2021, 「체계기능언어학과 비판적 담화 분석: 할리데이의 동사성 이론을 중심으로」,『불어불문학연구』 제 127권, 273-291.

3. 웹사이트

Anthony, L. AntConc Homepage,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Résumé

Analyse du discours du Roi Mohammed VI du Maroc :

Le changement idéologique avant et après le printemps arabe par la transitivité

INHEE KIM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a présente étude a pour but d'analyser le changement idéologique inhérent aux discours du roi Mohammed VI du Maroc avant et après le printemps arabe. Pour ce faire, nous étudions 10 discours du roi après le printemps arabe et 15 discours du roi l'année précédente.

Tout d'abord, nous introduisons de la méthodologie d'analyse critique du discours pour identifier l'influence de l'élément langage sur l'interaction « langage-pouvoir-idéologie ». Ensuite, nous examinons la transitivité de Halliday dans la génération du discours par le locuteur. Pour analyser la transitivité, le premier vocable choisi est le pronom personnel 'nous' et le deuxième est le mot-clé.

Enfin, nous analysons quel type de procés de la transitivité domine au sein de chaque période. Pour cela, nous examinons quels types de procès de la transitivité se répètent dans la proposition comprenant le référent de 'nous' ou le mot-clé. Le résultat de cette étude montre, qu'avant le printemps arabe, apparaît « l'idéologie d'une relation privilégiée avec la France », tandis qu'après celui-ci, l'idéologie du discours devient centrée sur « la démocratie ».

Mots-clés : analyse critique du disours, transitivité, idéologie, pronom personnel, AntConc, printemps arabe

Numéro d'étudiant : 2017-20579